

본 작품들의 열람기록은 로그파일로 남게 됩니다. 단순 열람 목적 외에 작가와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의 허락 없이 이용하거나 무단 전재, 복제, 배포 시
 저작권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제10회 전국문화콘텐츠 스토리텔링 공모전

구 분	내 용
제목	흥수아이
수상내역	최우수상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상)
작가	권은새, 김도연
공모분야	시나리오
주요내용	<p>구석기 유적인 흥수아이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청주시와 청원군의 아름다운 명소들 (연꽃방죽, 우암산, 낭추골, 구룡산)을 작품 속 배경으로 하여 구석기 시대 소년과 현대 소녀의 우정을 주요내용으로 함</p>

제목 : 홍수아이

1. 20만 년 전 구석기 시대 두루봉 동굴

어두운 동굴 속, 아주 오래된 벽화가 열린 불빛에 비춰진다. 벽화에는 몰래 숨어있는 겁에 질린 표정의 한 소년과 그 앞에 무시무시한 마녀가 그려져 있다.

내레이션: 아주 오랜, 오랜 옛날 옛적에 어느 눈보라가 세차게 몰아치는 어두운 밤하늘. 마녀는 높은 산꼭대기에 올라 섬뜩한 웃음소리와 함께 이상한 주문을 외우고 있었어요.

벽화 속 그림들이 살아 움직이며 점차 화면이 애니메이션으로 전환된다. 거센 눈보라가 세차게 불고 마녀의 웃음소리가 세상을 가득 메운다. 산꼭대기에 우두커니 서있는 마녀가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세상을 향해 외친다.

마녀: (사악하게 웃으며) 이 세상은 살아갈 가치가 없는 것들뿐이야. 난 모조리 파괴하겠어. 마법의 돌로 난 새로운 어둠의 지배자가 될 것이다. 세상이 더욱 혼란에 빠질지니!

내레이션: 마녀의 외침에 반응하여 마법의 돌에서 빛이 뿜어져 나오고 있어요. 눈보라는 더욱 세차게 치며 하늘엔 날벼락이 떨어지고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사람들의 끔찍한 비명소리가 들려요.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 계속되는 폭설과 한파로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은 추위와 배고픔에 굶주려 하나둘씩 쓰러져 가고 있어요.

그 때, 산꼭대기 너머 마녀가 하는 모든 행동을 지켜보는 한 소년이 있어요. 이 용감한 아이의 이름은 바로 ‘홍수’ 에요. 홍수는 화가 난 표정으로 마녀를 제압하고자 자신의 동물 친구인 쌍코뿔이 ‘뿌빠’ 와 함께 나설 준비를 해요. 뿌빠가 마녀의 시선을 돌리고자 앞으로 돌진하고, 그 틈을 타서 홍수는 마법의 돌을 재빠르게 낚아채어 두루봉 동굴 안으로 던져버려요.

마녀: (비명) 안 돼!

내레이션: 마녀는 돌을 찾기 위해 동굴로 들어가는데, 두루봉 동굴에 눈사태가 일어나 그만 동굴에 갇히게 돼요. 하지만, 세상의 멸망을 막은 홍수와 뿌빠도 그만 한파와 눈사태로 인해 눈 속에 파묻혀 버린답니다.

홍수와 뿌빠가 동굴에 파묻히는 장면 다음부터 책의 페이지가 빠르게 넘어가며 시간이 흘러감을 나타낸다.

내레이션: 그로부터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 흘러 2014년 여름.

2. 청원으로 향하는 차 안

구름 한 점 없이 화창한 어느 여름날. 바람은 살랑이며 우렁찬 매미소리가 들린다. 청원군 어느 마을의 한적한 일차선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 한 대가 보인다. 자동차에는 운전 중인 초롱이 엄마가 타고 있고, 조수석에는 초롱이가 앉아 조용히 책만 읽고 있다.

엄마: (힐끗 보며) 초롱아, 이번 방학 때까지만 할머니 댁에 잠깐 있어. 할머니 말씀 잘 듣고, 말썽 피우지 말고! 무슨 일 발생하면 엄마한테 꼭 연락하는 거 알지? 약 꼭 잘 챙겨먹고.

초롱: (시선은 책에 고정, 건성으로) 응, 알았어.

걱정스러운 눈길로 쳐다보는 엄마. 하지만 초롱이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다 읽은 책을 덮은 후 스마트폰 게임 삼매경에 빠진다. 창밖의 날씨와는 달리 차 안은 냉기가 감돈다. 대화가 끊긴 모녀. 긴 침묵의 시간이 지나고 이윽고 할머니 댁에 도착한다.

3. 청원 할머니 댁

마당이 딸린 작은 주택. 주황색 판자 지붕과 흙으로 바른 벽은 할머니와 집이 함께 한 세월을 보여주는 듯하다. 마당 한쪽에 깔린 돛자리 위에는 빨간 고추들이 말라 가고 있다. 거실에는 할머니가 홀로 나물을 다듬으며 TV를 보고 있다. ‘땡-땡’ 하는 초인종 소리가 들리지만 할머니는 잘 듣지 못하고, 초인종 소리가 여러 번 울리자 그제야 현관으로 향한다.

할머니: 누구세요?

엄마: 엄마, 저예요. 저.

반가운 목소리를 듣자 할머니는 얼굴에 화색이 돌며 문을 열어준다. ‘끼-익’ 하고 대문을 열자 곱게 화장을 하고 차려입은 차분한 단발의 초롱이 엄마와, 입을 꼭 다문 채 할머니를 뵈히 올려다보는 분홍색 원피스 차림의 초롱이가 서있다. 오랜만에 보는 할머니가 낯선 듯 손에 들고 있는 사슴 인형을 꼭 껴안는다.

엄마: 엄마, 저 왔어요. 초롱아~ 할머니께 인사 드려야지.

할머니: (반가워하며) 어이구, 내 강아지! 밥은 먹었어?

초롱: (손을 모아 인사하며) 할머니, 안녕하세요.

엄마: 엄마, 이번 여름방학 때까지만 우리 초롱이 좀 부탁해.

할머니: 아유 걱정 말아~ 요새 먹고 사느라 바쁘지? 그래도 모처럼 오랜만에 들렀는데 하룻밤이라도 자구 잤으면 좋겠구먼.

엄마: (마지못해) 알았어. 여긴 변한 게 없네.

초롱이는 두리번거리면서 낯선 집을 빙 둘러본다. 집 안 가득히 구수한 냄새가 느껴져 미간을 찌푸리며 코를 잡는다. 냄새가 제일 덜 나는 방 안으로 들어가 짐을 내려놓고 스마트폰 게임을 한다.

과일 상에 둘러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엄마와 할머니. 엄마가 방구석에 앉아있던 초롱이를 향해 고개를 돌리며 말을 건넨다.

엄마: 초롱아, 여기 박물관 생겼다고 신문에서 봤는데. 산책할 겸 엄마랑 같이 박물관 가볼까?

초롱: (시선은 스마트폰에) 난 그냥 집에서 쉴래.

엄마: (스마트폰 뺏으며) 초롱이 스마트폰 그만하라고 했지! 눈 나빠진다고 엄마가 전에 얘기했을 텐데? 엄마가 또 잔소리해야 해?

초롱: (신경질적으로) 알았다고 줌! 나 옷 좀 갈아입고!

스마트폰을 빼앗긴 초롱이는 입을 삐죽 내밀고 쿵쿵거리며 방 안에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고 나온다.

엄마: 엄마, 박물관은 어떻게 가야하죠?

할머니: 뭐어~? 어디?

엄마: (큰 목소리로 또박또박) 박.물.관.이요!

할머니: (알아들었다는 듯이) 아~, 그 박물관말이냐? 요 앞에서 버스타구 5정거장만 가면 된다. 거기 볼 것도 많다고 하더라. 다녀와서 저녁 먹을 거지? 오늘은 우리 강아지가 왔으니 맛있는 된장찌개 해야지.

된장찌개라는 말에 표정이 일그러지는 초롱이와 애써 초롱이를 달래려는 엄마는 집을 나서고, 버스를 타고 박물관(현재 충북대 박물관)에 도착한다.

4. 박물관 외부

화장한 날씨의 주말이라 그런지, 박물관에는 가족 관광객을 포함하여 학생들로 북적이다. 커다란 박물관 건물 주변에서 저마다 포즈를 잡고 사진을 찍는 아이들. 시종일관 웃음이 끊이질 않는다.

엄마: 초롱아, 너도 저기 앞에 서봐. 엄마가 예쁘게 사진 찍어줄게.

초롱: 됐어 엄마, 촌스럽게 무슨 사진이야. 그냥 들어가서 구경이나 하자.

엄마: (혼잣말로) 여자아이들은 엄마에게 애교도 막 부리는데 우리 딸내미 성격은 누굴 닮아서 저러는지 참. (허둥지둥하며) 초롱아~ 엄마랑 같이 가야지~

5. 박물관 내부

사람들로 북적북적한 박물관 내부. 선사시대 다양한 유물이 전시되어 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열심히 구석기 유물에 대해 설명하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탄성을 피우거나 지루해한다. 초롱이도 여느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엄마에게 투덜거리고 있다.

초롱: (짜증내며) 흥, 박물관은 재미없어. 난 놀이공원 가서 노는 게 더 좋은데. 펜 석기가 왜 유물이라는 거야?

엄마: 옛날 사람들은 지금 우리처럼 편리한 도구들이 많이 없었어. 그래서 저 돌 하나를 가지고 뿔족하게 다듬어서 사냥도 하고 곡식을 찧고 그랬지. 초롱이는 하도 도시생활에 익숙하다 보니까 모든 물건의 소중함을 모르는구나.

초롱: (시선을 돌리며) 그건 나도 알아. 책에서 봤어. 이건 주먹도끼잖아……. 이건?

심통이 난 얼굴로 구경하는 초롱이와 달리 엄마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감상한다. 그러던 중 유독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전시관을 발견한다.

엄마: 엇, 저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은 뭘까? 초롱아, 우리도 저기 가보자.

초롱: (싫증내며) 다리 아파, 이제 집으로 돌아갈래.

6. 박물관 내부-구석기 관

초롱이의 만류에 아랑곳 않고 엄마의 손에 이끌려 구석기 시대 아이 화석 앞으로 온 모녀. 화석 앞에는 박물관장이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있으며, 엄마와 초롱이도 함께 맨 뒤에서 박물관장의 설명을 듣는다.

박물관장: (화석을 가리키며) 여기 보시는 것은 어린 아이의 화석입니다. 저희는 연구를 통해 구석기 시대에 살았던 아이로 추측하고 있죠.

아이1: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진짜 구석기시대 살던 애 맞아요?

아이2: 우와, 남자예요? 여자예요?

아이3: 구석기 시대에는 뭐하고 놀았어요? 그때는 스마트폰이랑 컴퓨터도 없었을 텐데~

아이1: (순수한 표정으로) 잠만 자고 있었겠지, 친구들이랑 연락도 못하고.

아이2,3: ㅋㅋㅋ. 그래도 공부는 하지 않아도 되니까 부럽다.

엄마: (초롱이에게 속삭이며) 구석기시대에 산 아이의 화석이라는 데 참 신기하다.

엄마는 공룡이랑 다른 화석은 많이 봤는데 사람화석은 처음 보네, 그치? 초롱아?

초롱: (홍수 화석을 보며) 글썄, 별로. 근데 왜 재는 어린 나이에 죽었을까?

말과 달리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어린아이 화석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초롱. 이 때 아이 화석의 손가락 하나가 꿈틀거린다.

초롱: (놀라서) 엄마, 엄마! 재 손 움직이는 거 봤어?

엄마: (황당한 표정으로) 초롱아, 무슨 소리야? 저건 화석이야!

초롱: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아닌데? 분명 움직였는데……. 이상하네!

엄마: (초롱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요새 초롱이가 몸이 피곤했나 보구나. 이왕 할머니 댁에 왔으니 여기서 푹 쉬고 건강한 모습으로 서울로 다시 올라가자, 알았지?

초롱: (혼잣말로) 그래. 내가 잘못 봤을 거야. 화석이 움직일 리 없지. 엄마, 우리 그만 집으로 가자~

초롱이와 엄마는 박물관을 떠난다. 그리고 박물관 전시장에서 누군가가 움직인다. 점점 멀리 사라지는 초롱이와 엄마의 뒤로 전시장 안의 화석이 떠나는 초롱이를 지켜본다.

어린아이 화석(홍수): (초롱이를 바라보며) 저 아이는……?

구석기 시대, 절벽에 간신히 매달려 있는 또래 소녀의 손을 잡고 간신히 버티는 어린 홍수의 회상장면이 잠깐 등장했다 사라진다.

박물관 구경을 마치고 나오니 벌써 하늘이 어둑어둑하다. 초롱이 모녀는 버스를 탄다.

7. 달리는 버스 안

초롱이는 멍하니 창 밖을 내다보고 있다. 내일이면 엄마랑 떨어져서 지내야 한다는 생각에 쓸쓸함이 밀려온다.

8. 청원 할머니 댁

할머니는 한참 저녁식사 준비 중이다. 잠시 후,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와 각종 산나물 반찬이 가득한 밥상이 차려진다. 이 때 밖에서 소리가 들리고 할머니가 활짝 웃으며 문을 열어준다.

할머니: (반가워하며) 우리 강아지 박물관 구경은 잘 다녀왔어? 배고프지?

초롱: 네, 할머니. 저 옷 갈아입고 올게요.

엄마: (놀란 표정으로) 엄마, 뭐 하러 이렇게 반찬을 많이 해놨어?

할머니: (활짝 웃으면서) 니들 오니까 많이 했지! 우리 초롱이도 한 달 동안 잘 먹어야 하니까.

엄마: (미소 지으며) 엄마도 참, 맞다. 초롱이 재 진짜 햄 없음 밥 안 먹어. 근데 너무 많이 주지 마요. 아직 천식이 다 낫지 않았어요.

할머니: (잘 안 들린다는 듯이) 뭐? 해물?

엄마: 엄마, 햄이라고요!

할머니: (알아들었다는 듯이) 아하~ 햄이라고? 알았어.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밥상 앞에 앉은 초롱. 밥상을 보자마자 얼굴을 잔뜩 찡그린다. 엄마가 옆에서 초롱이에게 눈짓을 주지만, 초롱이는 아랑곳 않고 반찬 투정을 시작한다.

초롱: (짜증난 얼굴로) 반찬이 이게 뭐야? 먹을 게 하나도 없잖아

엄마: 반찬 투정하면 못써, 이런 나물도 먹어야지 병이 다 낫는 거야. 초롱이 너는 햄버거, 피자, 햄 이런 몸에 좋지 않은 것들만 먹으니까 계속 아프지!

초롱: (떼를 쓰며) 싫어. 싫어. 안 들려. 안 먹을 거야.

엄마: (질린 듯이)어휴, 재는 어떻게 해야 말을 잘 듣는지…….

할머니: 뉘둬라, 내가 꼭 해물? 챙겨줄테니께. 너부터 어여 먹고 널 일찍 떠나니까 꼭 자.

9. 박물관 내부-구석기 관

그 시각, 아무도 없는 조용한 박물관 안. 어두운 공간에 한 줄기 빛이 반짝거린다. 그 빛은 홍수 화석이 있는 곳에서 새어 나온다. 홍수 화석의 주변에 빛이 감돌더니 효과음과 함께 실제 구석기 시대 홍수의 모습 그대로 복원이 된다.

홍수: (기지개를 켜며) 아~~흠 잘 잤다. 뽀빠, 어디 있어?

뽀빠: (꼬리를 흔들며) 월월!

홍수가 깨어남에 따라, 구석기 시대에 홍수의 동물 친구였던 쌍코뿔이 뽀빠도 예전 모습 그대로 복원된다. 저 멀리서 반갑다는 듯이 꼬리를 흔들며 뽀빠가 홍수에게 달려온다.

홍수 : 뽀빠, 오늘 정말 신기한 아이를 보았어. 뭔가 낮이 익은 데 도무지 기억이 떠오르지 않아. 그 아이와 눈이 마주친 순간, 나도 모르게 몸이 움찔했어.

뽀빠 : 월월월. (자신의 몸을 홍수의 다리에 비빈다.)

홍수 : 뽀빠, 너 그 아이의 집을 찾아갈 수 있겠니? 넌 최고의 후각을 가졌잖아!

뽀빠 : 월월! (꼬리를 살랑거리며 앞장선다.)

홍수 : 좋아! 그 아이를 다시 한 번 만나야겠어!

쿵쿵거리며 냄새를 맡아 밖으로 나가는 뽀빠의 뒤에 홍수가 따라 나온다. 새로운 세상에 나온 설렘과 낮에 만난 여자 아이를 떠올리며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가벼운 발걸음을 옮긴다.

10. 청원 할머니 댁

방에서 잘 준비를 다 마친 모녀가 이불을 깔고 함께 눕는다. 초롱이는 엄마가 내일 떠나는 것이 내심 걱정인지 살짝 불안한 듯 보인다. 엄마의 옆에 꼬옥 달라붙어 커다란 눈망울로 엄마를 뽀뽀 바라보는 초롱.

초롱: (엄마의 옷 소매자락을 붙잡고) 엄마, 나도 내일 서울로 같이 올라가면 안 돼?
여기는 영화관도 없고, 백화점도 없고, 햄버거 가게도 없고, 치킨집도 없어.

엄마: (미안한 말투로) 초롱아, 엄마도 그러고 싶어. 하지만 엄마가 일 때문에 너무
바빠서 방학동안 초롱이를 돌봐주지 못 할 거 같아. 아빠도 회사일 때문에 바쁘
고……. 방학동안만 있음 엄마아빠가 금방 데리러 올게! 그때까지 할머니 말씀 잘
듣고, 약 꼭 잘 챙겨먹어. 엄마가 하루에 몇 번 약 먹으라고 했지?

초롱: 아침 점심 저녁 3번. (한숨을 내쉬며) 휴..근데 정말 여긴 아무것도 없잖아.

안쓰럽게 초롱이 얼굴을 바라보는 엄마. 초롱이 앞머리를 쓸어 넘기고 꼭 안아주며
말한다.

엄마: 엄마가 매일 연락할게. 알았지?

초롱: 쳇!

엄마: 초롱아, 얼른 자. 엄마 내일 일찍 출발해야 하니까 초롱이 얼굴 못보고 갈지
도 몰라.

초롱: …….

초롱이는 피곤했는지 이내 잠이 든다. 엄마는 잠든 초롱이의 모습을 한참 쳐다보다
가 잠이 든다. 밤은 깊어오고 귀뚜라미와 매미 소리가 밤하늘을 가득 메운다.

11. 초롱이의 꿈

초롱이는 낮에 박물관에서 봤던 소년과 함께 동산에서 뛰어 노는 꿈을 꾸다. 어디
서 본 것 같은 얼굴이지만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러나 곧 답답한 마음을 떨쳐
버리고 함박웃음을 지으며 신나게 뛰어 논다.

12. 청원 할머니 댁

다음날 새벽부터 닭은 꼬끼오 소리를 내며 아침을 알리고, 매미가 우렁차게 울어댄다. 초롱이는 아직 잠이 들어있고 초롱이 엄마는 서둘러서 서울로 갈 준비를 한다.

엄마: 엄마, 초롱이 잘 부탁해. 여기 생활비 좀 넣어드렸으니 맛있는 거 많이 사주세요.

할머니: 뭘 이런 걸 다 줘? 걱정하지 말고 어서 조심하 올라가.

엄마: 네, 초롱이 일부러 안 깨웠으니 좀 있으면 이거 구워서 주면 돼요.

초롱이 엄마는 차 안에서 햄과 각종 캔 종류를 꺼내서 할머니에게 전해준다.

할머니: 걱정하지 말래도. 너나 몸조심하고.

엄마: (아직 자고 있는 초롱이를 돌아보며) 엄마, 그럼 저 갈게요.

엄마는 차를 타고 떠나고, 할머니는 아침식사를 준비한다.

13. 초롱이의 방

햇별이 창문으로 내리쬐는 따사로운 아침, 낮선 남자 아이가 책상에 올라 자고 있는 초롱이를 뚫어지게 쳐다본다. 잠에서 깨자마자 기지개를 펴는 초롱이, 눈앞에 자신을 쳐다보는 홍수와 눈이 마주쳤다. 헛것을 본 듯 고개를 저으며 눈을 부비고 다시 홍수를 쳐다보는 초롱이. 이제야 헛것이 아님을 알아차리고 소리를 지른다.

초롱: (깜짝 놀라며) 엄마!!!!!!!!!!!!!!

홍수: (고개를 가우뚱거린다)

초롱: (옆에 있는 빗자루를 들며) 너 누구야? 너 여기 왜 있는 거야?! 안 가? 경찰에 신고 할 거야! 엄마! 할머니!

홍수: (웃으며) 해해, 안녕?

초롱: (옆에 있는 인형을 홍수에게 집어 던지며) 당장 나가!

뿌빠: (살짝 으르렁대며) 월월!

초롱: 아니, 저 더러운 동물은 또 뭐야? 빨리 안 나가?!

초롱이는 흥분해서 손가락질을 하며 홍수와 뿌빠를 찌러본다. 그런 초롱이를 신경 쓰지 않는 듯 홍수는 자기 집을 드나들 듯, 자유롭게 이것저것 만지면서 걸어 다닌다. 그리고 전등 스위치를 발견하고 킨다. 불이 환하게 비추자 홍수는 놀래서 자빠진다.

홍수: (경이로운 표정으로) 아니! 불님이 저 위에 계시네. 저건 작은 태양님이신가?
뿌빠: 왈왈!

홍수는 전등스위치를 켜다 껐다하며 신기해하며 즐거워한다.

홍수: 작은 태양님이 숨었다가 나타났다가 한다. 진짜 신기하다!

초롱이는 전등을 켜다 껐다하며 놀고 있는 홍수를 보며 의아하게 생각한다.

초롱: (혼잣말로) 이상하네. 꼭 한 번도 전등을 못 본 아이 같아. (홍수를 바라보며) 야! 너 집이 어디야? 당장 안 나가? 엄마! 엄마!

초롱이는 계속해서 소란을 피우는 홍수를 찡그리며 바라보고 뒷걸음질치듯이 방을 나간다.

14. 할머니 댁 거실

할머니: (활짝 웃으면서) 아이고, 우리강아지 일어났는가?

초롱: (불안해하며) 할머니, 엄마 어디 있어?

할머니: 니 엄마 아까 전에 출발했지. (옆에 있는 홍수를 보며) 아! 초롱이 친구구나~ 벌써 친구를 만들었어? 친구랑 잘 놀고 있어~ 할머니 오늘 마실 좀 다녀올게~ 밥은 차려놔오니 친구랑 맛있게 먹고~ 네가 좋아하는 해물 했다.

초롱이는 할머니를 붙잡으려 하지만 할머니는 콧노래를 부르시며 재빠르게 현관을 나간다.

초롱: (울거 같은 목소리로) 할머니...

한편, 고소한 밥 냄새를 맡은 홍수와 뿌빠는 냄새가 나는 쪽을 향해 돌진한다.

홍수: (손으로 반찬을 집으며) 이걸 먹는 건가?

뿌빠: (꼬리를 흔들며) 왈왈!

홍수: (햄을 집으며) 우웬, 텃텃 이거 왜 이렇게 짠 거야?

홍수와 뿌빠가 식탁에서 음식을 손으로 먹고 있고, 초롱이는 그들을 못마땅하게 쳐다보며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른다. 그러다가 말을 건넨다.

초롱: 너, 햄 처음 먹어봐?

홍수: (옆에 있는 불고기를 집으며) 이걸 뭐지? 이거 설마 불로 익힌 거야?

초롱: (한심한 듯) 그럼 고기를 불로 익혀서 먹지 날 것으로 먹어?

홍수 못들은 척 계속해서 음식을 손으로 집어 먹는다. 눈앞에 보이는 더러운 광경, 홍수 주위엔 밥과 반찬이 어질러져 있다.

초롱 : 아, 진짜! 저런 더러운 애랑 같이 밥을 먹는다고?

홍수 : 쿨룩쿨룩 무.....르 물 물.

초롱 : 저기 부엌 냉장고에 있으니까 알아서 갖다먹어. 난 너 때문에 비위 상해서 도저히 못 먹겠다. 저 더러운 동물은 또 뭐람!

뿌빠 : 윽윽. (기가 죽은 표정)

초롱이는 기가 찬다는 듯이 홍수와 뿌빠를 썰려보다가 방문을 쿵 닫고 들어간다.

15. 초롱이의 방

방에 들어온 초롱이는 쿵쿵거리며 책상 위에 앉아서 책을 편다. 뿌루통해진 초롱이는 책장을 확확 넘기며 짜증을 낸다.

초롱: 쟈 대체 어디서 온거지? 그 더러운 옷하며... 정말. 밥만 먹으면 빨리 내쫓아 버려야 겠다.

책을 다 읽고난 초롱이는 거실로 나간다.

초롱: 지금쯤이면 아마 다 먹었을 거야.

16. 할머니 댁 거실

아침밥을 다 먹은 홍수, 잔뜩 나온 배를 만지며 누워있다. 초롱이는 기가막힌다는 듯이 그런 홍수를 내려다본다.

초롱 : 넌 뱃속에 거지가 들었구나? 도대체 얼마나 먹은 거야!

홍수 : (못 들은 척) 낱냔 맛있다.

초롱 : 이제 다 먹었으면 너희 집으로 돌아가!

홍수 : (무시하며) 이진 뭐지? (TV리모컨을 잡는다.)

홍수가 TV리모컨의 전원 버튼을 누르자, TV에서 동물의 왕국이 나온다. 홍수는 동물의 왕국에서 나오는 사자를 보며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이상한 소리와 함께 뽀족한 송곳니를 보이며 경계의 태세를 갖춘다.

초롱 : (놀라며) 너 왜 그래! 저건 진짜가 아니라 TV잖아.

홍수 : (여전히 송곳니를 보이며) 그르르렁.

보다 못한 초롱이, TV를 끈다. TV를 끄자마자 경계 태세를 푼 홍수, 다시 얌전한 모습이다.

초롱: 너 진짜 이상하네, 마치 나와 다른 세상에서 온 아이 같아.

그 때, 홍수는 초롱이가 가장 아끼는 사슴인형을 한 손에 가지고 있다.

초롱: 그거 만지지마. 만지기만 해! 확 물어 버릴거야!

홍수: (경계 태세를 갖추고) 그르르러렁.

초롱: 그건 우리아빠가 나한테 준 생일 선물이란 말이야!

홍수, 초롱이의 말을 무시한 채 날카로운 송곳니로 사슴인형의 목을 물어버린다.
물어뜯긴 사슴인형의 숨은 여기저기 터져 만신창이가 되었다.

초롱: (울음을 터트리며) 으아아앙!! 너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아빠가 사준 내 소중한 인형인데.

홍수는 아직도 흥분 상태해서 사슴을 물어뜯고 있다.

초롱: 너 정말 가만 두지 않을 거야. (혼잣말로) 할머니가 오늘 장터가 열린다고 했지? 재를 거기에 두고 와야겠어. (홍수를 보며) 오늘 장터 열린다는 데 한번 가볼래? 거긴 네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무진장 많을 거야.

홍수, 끄덕끄덕하며 뿌빠와 함께 초롱이를 따라 나선다.

17. 마을 장터

복적복적 대는 마을 장터, 사람들은 모두 물건을 사고파느라 정신이 없다.
화려한 옛 가락 질을 구사하는 옛장수부터, 뛰어난 수타 솜씨를 발휘하는 자장면
집 아저씨와 공중으로 전을 던지며 받는 아주머니까지 볼거리가 가득한 마을 장터
이다.

초롱: (속으로) 이만하면 애네 들을 떼어 낼 수 있겠어. 나 잠깐 화장실 좀 다녀 올
테니까 여기서 구경하고 있어.

홍수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갇은 음식 냄새에 정신이 팔려있다. 이 틈을 타서 초롱
이는 화장실 가는 척 반대방향으로 뛰어간다.

초롱: (헉헉대며) 휴, 겨우 도망쳤네.

한숨 돌리는 찰나, 처음 와본 낯선 장터에서 길을 잃고 만다. 두리번거리며 집으로
돌아가는 방향을 찾다가 불량해 보이는 여중생 무리와 부딪힌다.

여중생1: (짜려보며) 아, 애 뭐야? 갑자기 뛰어나오면 어떡해!

여중생2: (입꼬리를 올리며) 애 뭔가 옷이 좀 비싸 보이는데? 아가야 돈 얼마 있어?

초롱: (약간 겁먹은 듯) 저리 가세요. 엄마한테 이를 거예요.

여중생3: 우리가 언제 너 잡아먹는다고 했니? 보아하니 우리 동네 사람이 아닌데.
가진 돈 내놓으면 순순히 보내줄게.

초롱: 저 돈 가진 거 없어요. 그리고 한번만 더 저한테 이러시면 소리 지를 거예요.

여중생1: (짜증내며) 이거 완전 당돌한 꼬맹이잖아? 너 한 번 혼나볼래?

여중생의 한 손이 허공에 올라오며 내리치려는 찰나, 홍수가 달려와서 으르렁거리
며 초롱이 앞에 선다.

초롱: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살려주세요!

초롱이가 얼굴을 가리는 순간, 주위가 조용하다. 초롱이는 조용히 감았던 눈을 뜬다.

여중생1: (경악하며)악! 애 뭐야?

홍수: (송곳니를 보이며) 으르르르르르릉.

여중생1: (소리 지르며) 이 고약한 냄새는 뭐야?!!!!!!!!!!!

여중생2: 이 기지배 친구인가 봐?

뿌빠: 월월!으르르르르... (여중생들을 향해 짖는다.)

여중생3: 애들아 그냥 우리 가자. (넘어져있는 초롱이를 보며) 운 좋은 줄 알아. 한번만 더 걸리면 진짜 언니들한테 크게 혼난다?

홍수, 아직 분이 가시지 않아 여중생이 떠나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며 으르렁거리고 초롱이는 무서움이 풀리자마자 자리에서 엉엉 울고 있다.

20분 후 가까스로 진정이 된 초롱이. 이제야 자신의 눈앞에 홍수와 뿌빠가 보인다.

초롱: (땃쩍은 듯) 너 여기 어쩐 일로 온 거야?

홍수: (아무렇지 않게) 나 너 따라왔지.

초롱: (흠칫 놀라며) 설마 나 계속 찾으러 다닌 거야?

뿌빠: (초롱이의 다리에 부비며) 월월월.

초롱이: (화내며) 내가 언제 너한테 도와 달라 했어? 왜 또 날 여기까지 찾으러 와서 난리야? 이제 제발 너희 집으로 가라고 줘!

이 때 홍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천둥처럼 울리고, 울던 초롱이는 어이없다는 듯이 홍수를 올려다 본다.

홍수: 배고파.

초롱: 아까 전에 우리 집에서 내 밥까지 다 먹었잖아?

홍수: 나 배고파.

초롱: 제발 집으로 돌아가~ 줘!

홍수: 알았어. 돌아갈게. 우선 먹자. 근데 우리 집으로 데려다 줄 수 있어?

초롱: 정말 밥만 먹음 너 집으로 돌아가는 거다?

홍수: (밝게 웃으며) 헤헤헤.

뿌빠: (꼬리치며)월월월!

홍수와 초롱이는 장터를 돌아다니다가 만두 냄새를 맡은 홍수가 만두가게 앞에 멈춰서서 검은찍게 웃는다. 초롱이는 홍수를 데리고 만두가게로 들어간다.

18. 만두가게

초롱이와 홍수, 뿌빠는 장터에 있는 만두가게에서 만두를 먹는다. 만두 접시는 점점 쌓여 어느덧 탑처럼 쌓여있다.

홍수: (게걸스럽게 먹으며) 맛있다. 우걱우걱.

초롱이: 아 창피해. 좀 제발 젓가락으로 천천히 먹을 수 없어? 학교에서 안 배웠니? 그리고 보니 너 몇 살이야? 왜 처음보자마자 나한테 반말이야?

홍수: (못들은 척) 남남남남.

초롱이: (체념한 듯) 됐다. 너한테 말을 건 내가 바보지. 아줌마 여기 얼마예요?

홍수 : (아쉬운 표정으로) 더 먹고 싶은데……. 나중에 여기 또 오자!

홍수는 뽕뽕해진 배를 만지며 만두가게를 나오고, 그런 홍수를 초롱이는 쿡쿡 웃으면서 쳐다본다. 초롱이의 얼굴이 한결 밝아 보인다.

19. 버스 정류장 앞

어느덧 해는 저물고 주황빛 노을이 물들은 저녁 하늘. 버스정류장에서 집으로 돌아갈 버스를 기다리는 홍수와 초롱이, 뿌빠.

초롱: 자, 이제 버스 타고 집으로 가! 몇 번 버스 타야해? 어느 방향이야?

홍수, 아무 말 하지 않은 채 어느 한 곳을 손가락으로 가리킨다. 초롱이는 홍수가 가리키는 방향을 바라본다.

초롱: 왜? 너네 집은 버스 타는 곳이 아니야? 알겠어! 걸어가자.

벌써 해는 저물고, 앞장 선 뽀빠 뒤로 초롱이와 홍수가 걸어가고 있다.

20. 박물관 앞 사거리

초롱이는 길을 걷다가 박물관이 보이자 자리에 멈춰 선다. 그리고 앞서가는 홍수를 부른다.

초롱: 여기 뭔가 이상해. 여기 박물관 가는 길이잖아! 나 지금 너랑 놀러가는 게 아니라고! 너희 집 가는 거야!

홍수: 우리 집 가고 있는 거 맞아.

초롱: 뭐어? 야! 같이 가!

홍수가 성큼성큼 걸어가고 초롱이가 그 뒤를 쫓아 뛰어간다.

21. 박물관 입구

눈 앞에 보이는 박물관. 홍수는 박물관 안으로 들어간다.

초롱: 잠깐, 지금 박물관 문 닫은 시간이라 박물관에 들어가면 박물관장님한테 혼 날거야.

홍수: (한 곳을 가리키며) 저기 비밀의 통로가 있어.

초롱: (두리번거리며) 아무도 없으니 무서운데?

초롱이가 주변을 살피고 있는 사이에 홍수는 성큼성큼 비밀통로로 향한다.

초롱: 앓 나도 같이 가!

뿌빠와 홍수, 통로를 향해 뛰어간다. 뒤따라가는 초롱이.

22. 박물관 화석 전시실

어두컴컴하고 퀴퀴한 냄새가 나는 전시실 안, 귀신이 나올 것 같이 으스스한 분위기에 초롱이는 겁을 먹고 홍수 옷자락을 살짝 잡고 걸어간다. 홍수는 그런 초롱이를 보며 살짝 웃고 조금 걸어가다가 멈춘다.

홍수: (손가락으로 가리키며)저기가 내 집이야.

홍수가 가리킨 곳은 바로 홍수 아이의 화석이 있는 전시관. 하지만 그 자리에 홍수 아이의 화석은 보이지 않는다.

초롱: (깜짝 놀라 말을 잊지 못하며) 너...너..너가 저 화석?

홍수: (끄덕끄덕)

초롱: 너 정말 구석기에서 온 사람 맞아?

홍수: 구석기? 내가 살던 곳은 여기에선 구석기라고 불리나?

초롱: (혼잣말로) 이건 꿈 일거야, 어떻게 화석이 살아 움직일 수 있지?

홍수: 너 어제 기억 안나? 나랑 눈 마주 쳤잖아.

초롱: 아니, 난 그냥 단지 관람하고 있었을 뿐이야.

홍수: 너의 목소리가 날 불러서 난 이렇게 잠에서 깨어났어.

초롱: 말도 안 돼! 이럴 수는 없어! 꿈일 거야, 꿈! 일단 내일 다시 생각해보자. 밤이 늦었으니 네가 나 좀 데려다 줘야겠어.

홍수: (방방 뛰며) 정말 다시 그 집에 나 가도 된단 말이야?!

뿌빠: 월월월! (기분이 좋아 한 바퀴 구른다.)

초롱: (내키지 않는 듯이) 으응. 가자.

초롱이와 홍수는 박물관을 나와서 버스를 탄다.

23. 달리는 버스 안

초롱이네 할머니댁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 뿌빠와 초롱이는 피곤한지 좌석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다. 초롱이는 아직도 어땡땡한 표정을 지으며 홍수를 바라본다.

초롱: (혼잣말로) 그때 내가 헛것을 본 게 아니구나. 이제 어떡하지?

버스가 멈춰서고 초롱이와 홍수가 버스에서 내린다.

24. 청원 할머니 댁 마당

밤이 늦었는데도 손녀가 오지 않자 걱정이 된 할머니가 마당을 빙글빙글 돌며 집 밖을 쳐다본다.

할머니: 아니, 애는 왜 안 오는 것이여. 설마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니겠지?

할머니는 걱정스럽다는 듯이 대문을 나와서 밖을 내다보고 있는데, 초롱이가 저 멀리서 홍수와 함께 오고 있다.

초롱: 할머니 나 왔어요! 늦어서 죄송해요.

할머니: 왜 이렇게 늦었어? 일찍 다녀야지! (옆에 있는 홍수를 보며) 친구랑 같이 온

겨?

초롱: 네, 할머니. 당분간만 여기서 같이 지내도 되죠?

할머니: 그럼, 되고 말고. 초롱이 외로울까봐 걱정했는데 친구 생겨서 좋겠네?

초롱: 아니에요, 정말 당분간만이에요!

할머니: 그러, 어여 들어와!

할머니와 초롱, 홍수, 뿌빠가 집으로 들어간다.

25. 청원 할머니 댁

초롱이는 피곤한지 방으로 터벅터벅 걸어간다. 홍수와 뿌빠가 초롱이 뒤를 졸졸 따라 들어간다.

26. 초롱이 방

초롱이는 씻을 준비를 하며 분주히 움직인다. 홍수는 방 안을 이리저리 살피며 놀고 있다.

초롱: (홍수를 보며) 나 먼저 씻을 테니까, 넌 저기서 이불이나 펴고 있어.

홍수: 이불? 이불이 뭐야?

초롱: 감기 걸릴까봐 덮고 자는 거. 저어기 장롱에 꺼내. 나 다 씻을 때까지 준비 안 해놓으면 혼날 줄 알아!

초롱이는 방문을 닫고 나간다. 홍수는 주섬주섬 장롱에서 이불을 꺼내서 대강 펼쳐 놓는다. 그리고 이불로 동굴을 만들고 그 곳에 들어가 있는데 다 씻은 초롱이가 방으로 들어온다.

초롱: 너 뭐하는 거야?

홍수: (태평한 목소리로) 잠 잘 준비지, 왜?

초롱: (질린다는 듯이) 너 진짜 더럽다, 정말. 빨리 씻고 와!

초롱이는 홍수를 화장실로 끌고 간다.

27. 화장실

홍수가 변기 물을 보고 놀라워하며 세수를 한다.

홍수 : 어푸어푸.

초롱: (경악하며) 너 뭐하는 거야? 지금 어디서 세수를 하는 거야?

홍수: (천연덕스럽게) 왜에?

초롱: 그건 불일 볼 때 내리는 물이라구! 세면대는 저기야! 이 더러운 놈아!

홍수: 알겠어...

홍수는 세면대에서 세수를 하는데 물이 여기저기 다 튈다.

초롱: 너 그게 씻는 거야? 물만 묻히는 거야?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씻는 거야? 그렇게 대충 씻어도 병에 안 걸렸어?

홍수: (자신만만하다는 듯이) 응. 난 엄청 건강해!

초롱이는 못 말린다는 표정을 짓고는 방 안으로 들어온다.

28. 초롱이 방

초롱이는 홍수가 아무렇게나 놓은 이불을 정리하고, 초롱이와 홍수는 나란히 옆에 누워있다. 초롱이는 잠이 오질 않아 뒤척거리며 홍수에게 말을 건다,

초롱: ...자?

홍수: 아니.

초롱: 근데 너 이름이 뭐야? 생각해보니까 하루 종일 같이 다니면서 이름 한 번 안 물어봤네.

홍수: 내 이름? 내 이름 잊어버렸어. 사실 난 내가 살았던 세상이 기억나질 않아.

초롱: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정말? 너 그럼 가족들도 기억이 안 난단 말이야?

홍수: 응.....

초롱: 흠... 앞으로 내가 너를 '홍수'라고 부를게. 철수, 명수는 너무 흔하니까. 언제 맘에 들지?

홍수: (발바닥을 비비며) 좋아! 좋아! 근데 너는 이름이 뭐야?

초롱: 내 이름은 초롱이야.

홍수: 초롱? 이름 되게 예쁘다. 헤헤.

초롱이는 쑥스러운 듯 웃고 홍수와 초롱이는 얘기를 나누다가 잠이 든다.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동자처럼 밤하늘의 별뿔별이 쏟아지는 밤, 물이 줄줄줄 흐르는 소리와 귀뚜라미의 자장가가 들린다.

29. 두루봉 동굴 근처

밝은 햇별이 내리쬘고 구름 한 점 없는 휴일. 박물관장 겸 고고학자인 그는 휴관일을 맞이하여 지역 동굴 탐사에 나선다. 비탈진 산길을 연신 땀을 흘리며 힘겹게 오르던 그는, 산비탈 깊숙한 곳에 위치한 두루봉 동굴(현재 청원군 문의면 노현리)을 발견하고 안쪽으로 들어간다.

30. 두루봉 동굴 안

어두컴컴한 동굴 안에서 박물관장은 땀을 뻘뻘 흘리며 탐사하고 있다.

박물관장: (땀을 흘리며) 휴..동굴 안이라서 그런지 습하고 덥군. 뭔가 건질 만한 게 있을 것 같은데.. 뭐 없으려나? 앗, 저 쪽에 빛나는 뭔가 있군!

동굴 속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무언가를 발견한 박물관장은 동굴 깊숙이 들어간다.

박물관장: 스스로 빛을 내는 돌이라니..참으로 신기하군! 대단한 발견일지도 몰라.
세상에 알려진다면 꽤나 떠들썩 하겠어!

박물관장이 빛나는 돌에 다가가려다 갑자기 몸이 튕겨져 나온다. 넘어진 채 어리둥
절하던 박물관장은 다시 일어나서 앞을 두드려보니 무언가 보이지 않는 벽이 진입
을 막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다 문득 동굴 안쪽에서 서늘한 기운을 느낀다.
그 곳을 쳐다보자 빨간 눈빛이 번쩍 비친다.

박물관장: (놀라서 뒷걸음치며) 거..거기 누구요!! 이 불길한 기운은 뭐지? 어서 이
돌을 가지고 나가야겠어!

빨간 눈빛은 서서히 정체를 드러내며 박물관장에게 다가왔다. 연보랏빛의 창백한
피부에 붉게 빛나는 눈, 치렁치렁한 액세서리와 부스스한 머리 형태를 지닌 것으로
보아 영락없는 마녀의 형상이었다. 동굴 깊숙한 곳에서 갑자기 나타난 그녀를 본
박물관장은 놀란 나머지 뒷걸음질을 치다가 그만 주저앉아 버린다.

마녀: (빨간 눈빛으로 관장을 내려다보며) 깔깔깔! 혼자 어딜 가려고? 그렇게는 안
되지! 내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 몸을 깨운 이상 그냥 보낼 순 없다!! 나의 부하
가 되거라!!

박물관장: 뭔가 불길하다..안 돼!!

짧은 외마디 비명을 지르던 관장은 이내 무언가에 홀린 듯, 스르륵 일어선다. 동굴
이 풀린 눈으로 터벅터벅 박물관을 향해 걸어가고 그 뒤를 마녀가 따라 간다. 마녀
는 동굴 밖의 공기를 들이 마시며 ‘호으음!’ 하고 기지개를 켜다. 주위를 둘러 보
던 그녀는 무언가 계락을 세우는 듯 의미심장한 미소를 띤다.

31. 청원 할머니 댁

태양이 밝게 내리쬐는 평화로운 낮, 홍수와 초롱이가 할머니 댁 대청마루에 한가로이 누워있다. 초롱이는 누워서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며 손가락을 연신 바쁘게 놀리고 있다. 홍수는 심심한 듯 굴러다니다가 옆에서 게임에 열중하는 초롱이를 궁금하다는 듯이 이리 저리 고개를 갸웃거리며 쳐다본다.

초롱: (농장육성게임을 하며)얍~!얍~! 사과 따고, 배추는 덜 자랐네.. 아우 내 포도 누가 훔쳐갔어!

홍수: (궁금하다는 듯이)흠... 이게 재밌어?

초롱: 여기서 할 게 뭐 있겠니. 이거라도 하는 게 낫지!

홍수: (뿌빠를 바라보며)뿌빠야! 너도 이게 재밌어보여?

뿌빠: (고개를 저으며)윽윽~..

그 때, 갑자기 홍수가 무언가 생각난 듯 벌떡 일어나 앉는다. 고개를 돌려 가만히 초롱이를 쳐다보던 홍수는 사과나무 화면에 시선을 집중한다. 그리고는 분주하게 나갈 채비를 하더니 초롱이에게 말을 건다.

홍수: 우리 여기서 이러지 말고. (초롱이의 손을 잡고) 가자!

초롱: (화들짝 놀라며) 야!!잠깐! 나 게임 마저 해야 돼~ 앓 내 핸드폰!

홍수는 초롱이의 손을 잡고 집 밖으로 뛰쳐나간다. 스마트폰을 떨어트린 초롱이는 표정이 잠시 일그러지지만 홍수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호기심을 느끼며 이내 무언가 기대하는 표정으로 바뀐다. 주섬주섬 옷가지를 여미는 초롱이의 뒤를 따라, 뿌빠가 신난다는 듯 헉헉대며 함께 나선다.

32. 뉴스화면

다음 날, 청주시 충북대 박물관에서 구석기 시대 아이와 쌍코뿔이의 화석이 사라졌다는 뉴스가 방송된다.

33. 청원군 현도면 하석리 ‘구룡산’

초록빛 나무들이 우거진 구룡산 산책로. 홍수와 뿌빠가 쿵쿵대며 냄새를 맡으며 산 위쪽으로 계속해서 이동한다. 한참을 걷다 다리와 호흡기관에 통증을 느낀 초룡이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숨을 가다듬는다. 손수건으로 땀을 훔치며 바위에 앉아서 멀리 가는 홍수와 뿌빠를 원망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본다. 그러다 이를 악물고 다시 힘주어 일어나 홍수와 뿌빠가 가는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한참을 더 이동하던 그들은 이윽고 어느 나무 앞에서 발걸음을 멈춘다.

홍수: 도착했다~!

뿌빠: 월!!

초룡: (숨 가빠하며) 여기가 도대체 어디야? 너희가 갑자기 뛰는 바람에 따라가느라 고생했잖아! 어휴 힘들어.

홍수: 아까 네가 이상한 네모에서 보던 과일나무를 실제로 보여주려고. 여길 봐!

초룡: (주위를 둘러보며) 그런 게 어디 있다고... 어머!

홍수가 가리키는 곳에는 커다란 사과나무 한 그루가 서있다. 햇볕을 받으며 반짝반짝 빛나는 붉은 빛의 잘 익은 사과가 탐스럽게 열려있고, 푸른 잎사귀는 바람에 살랑거린다. 초룡이는 커다란 눈망울로 사과나무를 뵈히 바라보며 입가에는 작은 미소가 피어오른다.

초룡: (무척 신나는 표정으로) 나 실제로 사과나무 처음 봐!

홍수: 옛날에 과일나무 하나 찾으면 끼니 걱정 없었는데~헤헤. (사과를 하나 따며 한입 베어문다) 음, 맛있군. 자 너도 먹어봐!

초룡: 에이, 더럽게 씻지도 않고 어떻게 먹어.

홍수: 그래? 싫으면 말고. 뿌빠야, 우리 같이 먹자~

뿌빠: (사과를 씹어 먹으며) 월월~

초룡: 에..에잇! 그 까짓 거 나도 먹는다, 뭐!! (사과를 하나 따서 먹는다) 음..맛있어! 게임으로 사과 수확하는 것 보다 실제로 해보니 더 재밌네!

사과나무 아래에 앉아 웃음꽃을 피우며 사이좋게 사과를 나눠먹던 중, 뿌빠가 무언

가의 냄새를 맡은 듯 벌떡 일어나 쿵쿵거리며 어디론가 향한다. 홍수 또한 뿌빠를 따라 냄새를 맡으며 초롱이를 데리고 길을 걷는다. 초롱이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잠자코 뿌빠와 홍수를 따라간다.

34. 청원군 낭성면 추정리 ‘낭추골’

홍수와 뿌빠가 냄새를 맡고 온 곳은 맑은 계곡물이 흐르는 낭추골이었다. 밝은 햇살 아래 반짝반짝 빛나는 계곡과 푸른 이끼가 평화로운 자연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하다. 목이 말랐던 듯 홍수와 뿌빠는 계곡물을 보자마자 한 걸음에 달려가 그대로 머리를 박고 물을 들이킨다. 초롱이는 아름다운 계곡의 경치에 반해 한참을 바라보다 허겁지겁 물을 마시는 홍수와 뿌빠를 보고 피식 웃는다.

홍수: 물이다! (물에 고개를 박고) 꿀꺽꿀꺽! 음, 살 것 같다.

뿌빠: (홍수 옆에서 계곡물을 마시며) 꿀꺽꿀꺽, 월월.

초롱: 으~! 너네 산에 있는 물을 그렇게 막 마시면 어떡해! 그런데 여긴 또 어디야? 주변이 예쁘다!

홍수: (손등으로 입을 닦으며) 우리 오후에는 여기서 놀자! 여기 놀 것이라 먹은 것 엄청 많다!

초롱: 여기 놀 게 뭐가 있다고 그래? (어깨에 스물스물 올라오는 무언가를 느끼며) 응? 근데 이게 뭐지? (어깨에 올라오는 도롱뇽을 확인한 후) 으악!!

홍수: 안녕? 반가워! 애는 우리를 해치지 않아!

초롱: (떨떠름한 표정으로)그..그래? 자세히 보니 좀 귀여운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보니 자연과학 책에서 도롱뇽 본 적 있어! 깨끗한 곳에서만 사는 거 맞지?

홍수: 응. 내가 살던 시절에는 어디를 가든 많았는데 여기 온 이후로는 처음 봤어.

초롱: 그렇구나! (도롱뇽이 어깨에서 내려가 뿌빠의 머리 위에 올라탄다) 푸하하! 뿌빠야, 도롱뇽이 네가 좋은가봐!

뿌빠: (머리 위의 도롱뇽을 잡으려 안간 힘을 쓰며) 월월..월월!!

뿌빠가 도롱뇽에게 놀림 당하는 모습을 보며 한참을 웃던 홍수와 초롱이는 문득 배고픔을 느낀다. 홍수는 낭추골에서 먹거리를 찾던 중, 계곡을 바라보며 무언가 생각난 듯이 얼굴에 밝은 표정이 피어오른다. 곧바로 계곡의 바위가 모여 있는 곳으로 다가간 후, 초롱이 쪽을 보며 이리 오라는 손짓을 한다. 초롱이는 무슨 일인지 궁금하여 돌 위를 폴짝폴짝 뛰어 그 곳으로 가본다.

홍수: (계곡의 돌을 들추며) 여기 보면~짜잔!

초롱: 이게 뭐야? 웬 작은 돌맹이 같은 것들이 다닥다닥 모여있네? (무언가 생각난 듯이) 아! 그리고 보니 애도 자연과학 책에서 봤어! 이름이 다슬기..던가?

홍수: 맞아! 다슬기 껍을 둘러싼 딱딱한 부분 말고 말랑말랑한 안쪽 살을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데~ (쪽 빨아먹으며) 너도 한 번 먹어봐!

초롱: 음, 싫어! 난 생으로 못 먹겠어! 우리 할머니한테 이걸로 음식 만들어 달라고 할래!

홍수: 그럼 우리 같이 이거 잡아가자~ 뿌빠야 너도 도와줘~!

뿌빠: (머리에서 떨어지지 않는 도롱뇽과 싸우다 지쳐) 월....월..끄응..

초롱: 하하!! 뿌빠 바보같아~! 다슬기를 어떻게 잡으면 되는 거야?

홍수: (바위에 붙은 다슬기를 떼어내며) 자 이렇게~!

홍수가 초롱이에게 다슬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고, 홍수는 풀숲으로 뛰어간다. 그곳에서 다슬기를 담기 위해 풀을 엮어 바구니를 만든다. 풀로 엮은 바구니에 어느덧 다슬기가 한가득 차고, 시간은 흘러 해가 누엿누엿 지어 저녁이 된다. 초롱이와 홍수와 뿌빠가 다슬기를 한 아름 짊어지고 할머니 댁으로 돌아온다.

35. 청원 할머니 댁

할머니: 아이구 내 새끼들~ 하루 종일 안 보이더만 재미있게 놀다 왔어? (바구니를 보며) 그건 뭐여?

초롱: (밝은 얼굴로) 할머니! 홍수랑 내가 다슬기 이만큼 잡아왔어요!

할머니: 세상에~ 이렇게나 많이 잡아왔어? 우리 손녀가 이런 것도 먹을 줄 아는구나! 할미가 이걸로 금방 맛있는 된장찌개 끓여다 줄게~!

초롱: (난감한 표정으로) 으..된장찌개? 다슬기를 된장찌개에 넣는 거였어?

홍수: 할머니 요리!!할머니 음식!!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신나!

뿌빠: (덩달이 신이 난 듯) 월월!

푸른 밤이 찾아오고 할머니 댁에는 맛있는 밥 냄새와 구수한 다슬기 된장찌개 냄새가 피어오른다. 된장찌개를 싫어하는 초롱이지만, 오늘 만큼은 자신이 잡아온 다슬기를 넣는다고 하니 된장찌개 냄새에 적응해보려 안간힘을 쓴다. 홍수는 맛있는 냄

새에 저절로 어깨를 들썩이고, 덩달아 신이 난 듯 뽀빠도 마당에서 강충강충 뽀박질을 한다.

할머니: 옛다, 우리 초롱이랑 홍수가 따온 다슬기로 끓인 된장찌개다. 다들 맛있게 먹거라. 할미도 잘 먹을게~

초롱, 홍수 : 잘 먹겠습니다!!

초롱: (서투른 숟가락질로 게걸스럽게 먹는 홍수를 보며) 애는 또 더럽게!!

홍수: (행복한 표정으로) 오늘따라 더 맛있다!

초롱: 으..된장찌개.. 그래도 내가 잡은 다슬기가 들어있으니 한 번 먹어볼까? (다슬기 된장찌개를 한 숟갈 떠서 입에 넣는다) 음..맛있다! (된장찌개로 밥 한 그릇을 푹딱 비운다) 할머니! 나 밥 한 그릇 더 주세요!

할머니: (호뭇하게) 그래그래~ 내 새끼가 된장찌개 맛을 알았구나. 많이 먹고 쑥쑥 크려무나.

행복한 저녁식사 시간이 끝난 후, 초롱이와 홍수가 대청마루에 앉아 밤하늘에 무수히 빛나는 별들을 본다. 선선한 여름 밤 바람이 얼굴을 스친다. 초롱이는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며 시선을 하늘로 옮긴다. 하루 동안 있었던 즐거운 일들을 떠올리자 서울과 다른 이곳에서의 생활이 그리 싫지 않게 느껴진다.

초롱: 홍수야, 오늘 정말 재미있었어. 사과도 따먹고, 귀여운 도롱뇽도 보고, 다슬기도 잡고! 컴퓨터랑 스마트폰 없이 밖에서 놀아본 게 얼마 만인지 몰라.

홍수: 우리 그럼 내일 또 놀러가자!

초롱: 그래 좋아! 뽀빠야 우리 내일도 재미나게 놀자~!

뽀빠: 월월!!

셋은 내일을 기약하며 함박웃음을 짓는다. 밤이 무르익자 초롱이는 이부자리를 펴고 할머니 곁에 나란히 눕는다.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리고 두근거리는 가슴을 토닥이며 잠자리에 든다. 홍수와 뽀빠는 대청마루에서 시원하게 양 팔과 다리를 뻗은 채 코를 골며 잠이 든다. 재미났던 하루가 문득 떠오르듯 얼굴에는 잠결에 간간히 웃음이 번진다.

다음날 아침, 초롱이가 새벽같이 일어나 거실에서 빨래를 개고 있는 할머니에게 다가간다. 졸린 눈을 비비며 부스스한 머리와 내복 차림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초롱: (반쯤 감긴 눈으로) 할머니이...

할머니: (놀란 눈으로) 으잉? 우리 늦잠꾸러기 아가씨가 어쩐 일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초롱: 우리 오늘 또 밖으로 놀러가기로 했거든요. 추천 좀 해주세요!

할머니: 뭐어? 추천~? 복권이라도 하는거여?

초롱: 아이참, 할머니! 어디 놀만한 곳 있냐고요!

할머니: 아앙~ 그러면 저어기 연꽃방죽 안 가볼래? 우리 초롱이 닮은 예쁜 연꽃들이 가득 있는 곳이란다.

초롱: 우와! 할머니 고마워요! (홍수를 흔들며 깨우며) 일어나 홍수! 오늘은 연꽃이다!! (우당탕 뛰어다니며) 다들 얼른 일어나! 가자고!!

홍수: (베개를 끌어안으며) 우웅...졸려.....

뿌빠: (영문도 모른 채 초롱이를 따라다니며) 월월!!

36. 청주시 흥덕구 장암동 ‘연꽃방죽’

아침 일찍부터 초롱이의 손에 이끌려 따라 나온 홍수와 뿌빠. 생전 처음 버스를 타보는 홍수 때문에 갖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마침내 연꽃방죽에 도착한다.

초롱: 너 때문에 내가 버스 타느라 아주 고생했다, 으이구! (연꽃방죽을 둘러보며) 그래도 이렇게 와보니 기분이 좋다!

홍수: 아까 그건 무슨 동물인거야 도대체! 왜 안쪽은 텅텅 비어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니까. 그런데 여기 정말 예쁘다! 꽃들이 천지에 깔려있네.

뿌빠: (연꽃을 뜯어먹으며) 월...으르르..월..

초롱: (뿌빠를 말리며) 뿌빠야! 꽃 먹는 거 아니야, 꽃이 아야 하잖아. 여기 있는 예쁜 꽃들을 보니 노래가 하고 싶어지는데? 음~음

홍수: 오 초롱이가 노래를 한다! 짹짹!

초롱: (부끄러운 듯) 내가 노래하는 모습은 정말 보기 힘든 광경이야! 영광으로 여기고 잘 듣도록 해! 흠...흠! 사과 같은 내 얼굴~ 예쁘기도 하지요~

홍수,뿌빠: (귀를 틀어막으며) 으악!!!

초롱: (당황한 표정으로) 뭐, 뭐야. 왜 그래! 무슨 일이야!

홍수: (난감해하며) 음...초롱아. 너 노래를 참.....

초롱: 아~ 난 또 뭐라고. 너도 내가 노래를 너무 잘해서 깜짝 놀란 거지? 후훗. 아직 끝나지 않았어. 눈도 반짝~ 코도 반짝~ 입도 반짝반짝~

홍수, 뿌빠 : (괴로워하며) 아아아아아악

초롱: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왜 저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지? 그렇게 감탄스러운가?

초롱이는 정신 없는 홍수와 뿌빠를 데리고 연꽃방죽 이 곳 저 곳을 돌아다니며 연꽃을 구경한다. 곧 정신이 돌아온 홍수와 뿌빠는 맑은 공기와 아름다운 연꽃방죽 경치에 반해 한참을 바라보다 다음 장소로 발걸음을 옮긴다.

37. 청주시 상당구 ‘우암산’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아래 우뚝 솟아있는 우암산. 신나게 달리기를 하며 산을 오르던 셋은 야트막한 산의 중간 쯤에 멈추어 들판에 눕는다.

초롱: (양 팔을 벌리고 들판에 누워서) 정말 오랜만에 뛰어본 것 같아! 나 사실 천식이 있거든.. 서울에서는 조금만 뛰어도 숨이 차오르고 힘들었는데, 여기에서 지낸 이후로 천식이 많이 나아진 것 같아!

홍수: 천식이 뭐야? 뿌빠야 천식을 먹어 치워버려!

뿌빠: (초롱이에게 다가간다) 쿵쿵..

초롱: (뿌빠를 손으로 밀어내며) 천식? 있어, 그런 게. 기침 많이 하고……. 하여튼 귀찮은 거야. 너랑 같이 있었던 뒤로 천식 때문에 고통 받지 않아. 내가 그 보답으로 예쁜 꽃반지 만들어 줄게!

주위에 가득 핀 들꽃무리로 다가가 꽃을 한 아름 꺾은 뒤, 작은 손으로 열심히 꽃반지를 만든다.

초롱 : 짜잔! 다 만들었다! (홍수의 손에 끼워주며) 너 이거 절대 빼면 안 돼~ 알았지?

홍수 : (말 없이 꽃반지를 보며 생각에 잠긴다) …….

38. 홍수의 과거회상

구석기 시대. 절벽 끝에 탐스러운 꽃 한 송이가 피어있다. 초롱이를 닮은 여자아이가 그 곳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간다.

여자아이 : 꽃이 정말 예쁘다. 홍수에게 따다 주면 좋아할거야.

절벽 끝에 다다라 조심스레 손을 뻗지만 닿지 않는다. 조금 더 다가가 손을 뻗어본다.

여자아이 : 음..짧네.. 조금만 더.. (발을 헛디디며) 아앗!!

그 때, 홍수가 저 멀리서 다가온다. 여자아이의 얼굴을 보고 밝게 웃으며 다가오지만 헛디디는 모습을 보고 놀라 급하게 달려온다. 여자아이가 절벽 너머로 떨어지려던 찰나 홍수가 여자아이의 손을 잡싸게 잡는다.

홍수 : 어떻게 된 거야! 내 손을 꼭 잡아! 조심해!!

여자아이 : 홍수야.. 난 그저 저 꽃이 너무 예뻐서.. 너가 좋아할 것 같아서..

홍수 : 바보야! 그렇다고 이렇게 위험한 행동을 하면 어떡해! 절대 손에 힘 빼면 안돼, 알았지?

여자아이 : 홍수야.. 나 힘들어. 꽃을 너에게 꼭 주고 싶었는데..미안해..

홍수 : 안돼! 안돼!!

여자아이의 손에 힘이 점점 빠지고, 결국 절벽 아래로 추락한다. 홍수는 그저 눈물을 흘리며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홍수를 위해 꽃을 따던 구석기 시대의 여자아이가 절벽으로 떨어지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진다. 기억해내기 싫은 듯 눈을 질끈 감아버리는 홍수.

39. 현재-우암산 들판

말없이 꽃반지만 쳐다보는 홍수의 몸을 초롱이가 흔든다.

초롱 : 홍수!!!!

홍수 : (정신 차리며) 앗! 내가 잠시 생각에 빠져서..

초롱 : 흥, 찢끄만 게 생각은 무슨 생각! 우리 이제 그만 집에 가자. 해가 지고 있어!

홍수 : (쓱쓱한 미소를 지으며) 그래.. 집에 가자!

40. 청원 할머니 댁

초롱 : (발랄하게) 할머니~! 저희 왔어요!

할머니 : 오냐 우리 강아지들~ 오늘은 어디 놀러 갔다 왔어?

초롱 : 연꽃방죽이랑 우암산 다녀왔어요!

할머니 : 으응? 오늘은 우렁이를 따왔어?

초롱 : ...아니예요 할머니. 배고파요 밥 주세요!

홍수 : 배고파요 밥 주세요~!

뿌빠 : 월월!!

할머니 : 그래그래 다들 조금만 기다리거라.

할머니 댁에는 또다시 맛있는 밥 냄새가 풍기고 밤하늘의 별들이 반짝이며 평화로운 밤이 찾아온다.

41. 박물관 내부

어둠이 드리워진 새벽, 박물관에서는 기분 나쁜 붉은 기운이 솟아오른다.

마녀 : 깔깔깔~ 드디어 나의 힘이 다 회복되었다.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세상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겠어!

박물관장 : 도대체 이 세상에 무슨 짓을 하려는 거지?

마녀 : 네 놈은 알 것 없다! 이제 넌 소용이 없으니 구석에 처박혀 있어!

마녀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밧줄이 박물관장의 몸을 칭칭 감싼다. 버둥거리는 박

물관장의 몸이 저절로 지하실로 튕겨져 나간다.

마녀 : 네놈은 지하실에 갇혀 이 세상이 멸망하는 꼴을 보라고. 그 동안 수고했다.
갈갈갈!!

42. 두루봉 동굴

동굴 안에 있는 마법의 돌이 마녀가 움직임과 동시에 반짝거린다. 마녀의 움직임을
알리듯 기분 나쁜 불빛이 동굴 전체를 비추며 무언가의 변화를 암시한다.

43. 박물관 옥상

마녀는 박물관 옥상으로 올라가 화석들을 깨울 준비를 한다.

마녀 : 이제껏 보지 못했던 새로운 나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멸망시켜주지! 그 동안
모아둔 화석들이여! 나의 구석기 시대 부하들이여 나와라! 이 세상을 너희들의 힘으
로 마음껏 파괴하라!!

마녀의 외침과 함께 빛이 전시된 화석들에 닿더니, 화석들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마
녀의 주술에 이끌려 화석들은 박물관 밖으로 나가 건물을 부수고 주변 환경을 망가
트리기 시작한다.

마녀 : 갈갈갈!! 전부 파괴해버려! 세상은 이제 어둠만이 존재하게 될 것이다! 어두운
먹구름아, 비바람아 몰아쳐라!!

하늘에는 점점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떠오르는 태양을 감쪽같이 숨겨버린다. 세상은
온통 어둠으로 가득 차있고 태풍우가 점점 거세게 몰아친다.

44. 청원 할머니 댁

밖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리자 집에서 놀던 초롱이와 홍수는 의아해하며 거실로 나온다. 외할머니는 앉아서 콩나물을 다듬으며 TV를 보고 있다.

초롱: 할머니, 이상한 소리 안나요?

외할머니: (귀에다가 손을 가져다 대며) 뭐어? 나가서 논다구?

초롱: 아니, 그게 아니라 (큰 목소리가 또박또박) 밖.이. 이.상.하.지. 앓.냐.구.요?

외할머니: 그~래. 어여 나가 놀다 와라.

초롱: 진짜 할머니는 못말리신다니까...

홍수: 초롱아, 밖에 나가보자!

초롱: 응! 뿌빠야, 너도 같이 가자.

초롱이는 홍수와 함께 집을 나온다. 할머니는 피곤하신지 방으로 들어가서 몸을 누인다.

45. 청원 할머니 댁 밖

한낮인데도 불구하고 바깥이 시꺼먼 구름에 휩싸여 있고 을씨년스럽다. 마을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면서 도망가기에 바쁘다. 뭔가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커다란 검은 그림자들이 움직이고 있다.

초롱: (불안한 표정으로)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하늘이 어두컴컴해.

홍수: 음...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아.

초롱: (덜덜 떨며) 으...무서워!!

홍수: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그런데 저쪽에 커다란 물체들은 대체 뭘까?

홍수는 근처를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상황을 파악하려고 한다. 홍수는 옆 집 지붕으로 올라가서 한 바퀴 빙 둘러보다가 한 곳에 멈춘다. 하늘 한 가운데서 천둥번개가

치고 있고 그 곳에서부터 커다란 물체들이 청원 시내를 향해 돌진하고 있다.

홍수: (심각한 표정으로) 천둥이 치는 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분명해!

홍수는 뒤를 돌아보고 초롱이가 있는 곳을 향하는데, 그 순간 초롱이의 위에서 커다란 물체가 떨어지려고 한다.

홍수: (다급하게) 위험해!

초롱: (웅크리며) 짹!

홍수는 재빠르게 달려가서 초롱이를 안고 반대편으로 뛰어간다. 홍수는 그 물체에 가까이 다가가서 무엇인지 확인해 보고는 돌아온다. 초롱이는 몸을 떨며 겁에 질린 표정을 짓는다.

초롱: 고마워! (공포에 질린 눈으로 바라보며) 저 괴물은 뭐지?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발생한 거 같아.

홍수: (고개를 갸우뚱하며) 저건 분명 맘모스인거 같은데... 옛날에 많이 잡아먹었는데! 맛있어 저거!

뿌빠: (침을 질질 흘리며) 월월!

홍수: (입맛을 다시며) 너도 기억하는구나? 하하하. 그리고 보니 아직 밥을 못 먹었다. 아~ 배고파.

초롱: (기가 막혀하며 웃는다) 넌 이런 상황에서도 먹을 거 생각이 나? 참 너답다. 근데 방금 뭐라고 했어?

홍수: 아, 저거 엄청 맛있다고.

초롱: 아니 그러니까. 저게 대체 뭐냐고!!

홍수: 아~ 맘모스! 예전에 구석기 시대에 있었던 맘모스랑 비슷한 것 같아. (고개를 갸우뚱하며) 좀 생긴 게 더 이상해 보이긴 하지만...

초롱: 뭐? 맘모스? 그럴 리가 없어! 맘모스는 이미 멸종했다구!

홍수: 어쩐지... 밖에 나가도 하나도 안 보이더라.

홍수의 눈빛에 잠시 쓸쓸함이 스쳐 지나간다. 이 때 쿵 하는 소리가 들려서 뒤를

바라보니 맘모스가 가까이와 있다.

뿌빠: (뒤를 쳐다보며 으르렁거리며) 윽윽!

홍수: (뒤를 바라보며) 왜 계속 달려오는 거지? 일단 잡아야겠다! 뿌빠야 도와줘!

홍수는 움직이는 맘모스를 향해 달려가고 주변에 부서진 콘크리트 조각들을 던지며 공격을 한다. 맘모스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홍수를 향해 달려오는데, 이 때 뿌빠가 한 바퀴 공중에서 몸을 굴리고 커다랗게 변신해서 맘모스의 공격을 방어해준다.

홍수: 뿌빠야 고마워! 너가 내 뒤를 좀 봐줘!

뿌빠: (으르렁거리며) 윽윽!

홍수: (뛰어가며)이야압!

홍수는 맘모스를 향해 다시 한 번 콘크리트 조각을 던지지만 맘모스는 꿈쩍하지 않고 달려든다.

홍수: (공격을 피하며) 헉헉. 뭐야? 맞혔던 거 같은데 계속 움직이네.

맘모스를 홍수를 향해 다시 돌진하려 들고 홍수는 맘모스를 피해서 더 큰 콘크리트 조각을 던지지만 맘모스는 잠시 주춤하다가 다시 덤벼든다.

홍수: 어라? 이번엔 분명 맞췄는데! 뭐지?

맘모스가 홍수를 향해 발길질을 하고 홍수는 가까스로 피한다.

홍수: (숨을 거칠게 쉬며) 헉헉. 아슬아슬했네.

초롱: (다급하게) 홍수야! 맘모스의 등뼈를 공격해!

홍수: 등뼈? 알겠어! 뿌빠야, 맘모스 등에 올라갈 수 있게 도와줘!

뿌빠: (달려오며)월월!

홍수는 뿌빠 등을 타고 달려가다가 뛰어올라서 맘모스 위에 올라탄다. 그리고 맘모스 등의 중심 뼈 하나를 잡고 뿔자 맘모스가 그대로 와르르 무너진다.

홍수: (활짝 웃으며) 초롱이가 얘기한 게 맞았어! 대단하다!

초롱: 모든 동물은 척추가 있는 부분이 급소야. 그것도 모르다니 바보!

홍수: 그렇구나!

초롱: (다급하게) 저기 또 화석 하나가 오고 있어!

홍수: 이것들이 끝도 없이 몰려오네.

홍수는 뿌빠 등 뒤에 타고 또 다른 화석을 향해 달려간다. 그리고 등 뒤에 올라타서 뼈대를 뿔자 화석이 와르르 무너진다. 홍수와 뿌빠는 초롱이 옆으로 다가온다.

홍수: 초롱아, 괜찮아?

초롱: 으... 뼈에 깔릴 뻔 했잖아! 너는 괜찮은거야?

홍수: (자신만만해 하며) 당연하지! 내가 누군데! 이 정도로는 끄떡없다구!

초롱: (질린다는 듯이)아무튼... 못 말린다니까...!

홍수: 그런데 진짜 재네들 왜 갑자기 화가 나서 뛰어다니는 거지?

홍수의 뒤로 흥분한 듯이 보이는 맘모스와 다른 화석들이 쿵쿵 거리면서 달려온다.

초롱: 이렇게 가다가는 끝이 없겠어!

홍수: 그런데 재네들 같은 방향에서 오고 있는 것 같아.

초롱: 어 진짜! 계속 같은 곳에서 나와서 한 방향으로 가고 있네.

홍수: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초롱: 음... 화석들이 오는 방향이 일정하니까 일단 저쪽으로 가보자! 뭔가가 있을 것 같아.

홍수: 그래, 가보자! 뿌빠야, 등 좀 빌려줘!

뿌빠: (등을 들이밀며) 월월!!

홍수와 초롱이는 뿌빠 등을 타고 화석들이 몰려오는 방향(박물관)을 향해 달려간다.

46. 박물관 뒤편

온통 사방이 어둠에 휩싸여 있고 하늘에 마녀가 둥둥 떠 있다. 마녀가 정체를 알 수 없는 언어로 무엇인가 주문을 외우자 화석들이 하나 둘씩 뼈가 맞춰지면서 검은 색의 눈동자가 생긴다. 화석들은 움직이기 시작하고 청원과 청주 도심을 향한다. 멀리서 홍수와 초롱이, 뿌빠가 달려오고 그들은 하늘에 떠있는 마녀를 발견한다.

초롱: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저기 누군가가 있어!

홍수: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 아니! 저건!

초롱: 왜 그래? 홍수야?

홍수: …….

홍수는 과거를 회상한다. 화면이 흐릿해지면서 구석기 시대의 모습이 나타난다.

47. 과거회상-구석기 시대

구석기 시대, 홍수가 살고 있는 무리에 어느 날 누추한 행색을 한 할머니가 찾아와서 자신을 도와달라고 한다.

할머니: 물… 물 좀 줘요.

무리 족장: 할머니! 여기 물이요. 어디 편찮으신가요?

할머니: 내가 길을 잃어서…….

할머니는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무리 사람들은 몸이 성치 않은 할머니를 친절하게 보살펴준다. 무리 사람들의 지극한 보살핌에 할머니는 점차 기력을 회복한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가 사라지고 사람들은 할머니를 걱정한다.

무리 족장: 대체 그 할머니는 어딜 가신거지? 몸도 성치 않으신 분이...

무리 사람1: 그러게 말이에요. 날도 추운데 걱정이네요.

홍수는 무리 사람들이 할머니를 걱정하는 것을 보고 홀로 돌아다니면서 할머니를 찾기 시작한다. 그러던 중 하늘이 어두컴컴해지기 시작하고 하늘에서 빙하 덩어리와 운석들이 떨어지고 무리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재난에 우왕좌왕한다.

무리 사람2: 꼬아악!

무리 사람3: 아악, 살려줘!

무리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울려 퍼지고 사람들이 하나 둘씩 빙하에 깔려 목숨을 잃는다.

한편, 높은 언덕에 올라가 있던 홍수는 여기저기서 울리는 비명소리에 아래를 내려다 본 후 사람들이 빙하에 깔려 죽어가는 모습을 목격한다.

홍수: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대체 무슨 일이지? 여긴 멀쩡한데 어째서?

두리번거리던 홍수는 할머니가 거대하고 빛이 나는 돌 옆에서 중얼중얼 거리자 빙하 덩어리와 운석 등이 떨어지는 것을 발견한다.

홍수: 아니, 저 사람은?!

홍수는 주문을 외우고 있는 할머니(마녀)가 있는 곳으로 달려간다.

홍수: 멈춰! 당장 멈추라고!!

마녀는 홍수의 목소리를 듣고 잠시 외우던 주문을 멈춘다. 그리고 서서히 홍수를 향해 고개를 돌린다. 마녀의 모습은 예전의 할머니 모습보다 훨씬 젊어져 있고 눈빛은 빨간색으로 변해서 무시무시한 느낌을 준다.

홍수: (절규하며) 아...아니, 당신이 어떻게 우리 무리를 죽일 수가 있어요?

할머니(마녀): 깔깔깔. 살아 있다니 운이 좋군!

홍수: 우리는 당신에게 친절을 베풀었는데, 이게 무슨 짓이에요?

할머니(마녀): 흥! 감히 인간 주제에 누구한테 대드는 거야? 그간의 정을 봐서 꼬맹이 너 하나쯤은 살려주마. 거기 앉아서 이 세상의 멸망을 구경하라고. 깔깔깔.

마녀는 고개를 돌리고 다시 주문을 외우기 시작한다.

홍수: 당신! 절대 용서 못해!!!

홍수는 몸을 던져서 마녀를 절벽으로 떨어뜨리는데 홍수도 그만 마녀와 함께 떨어지게 된다. 그리고 홍수는 오랜 시간을 거쳐 화석이 되고 만다.

48. 현실-박물관 근처

회상장면이 끝나고 홍수는 몸을 부르르 떴다. 현실은 여전히 어두컴컴하고 화석들이 돌아다니고 있다. 홍수는 과거 회상의 여운이 가시지 않은 듯 몸을 움크리고 있다. 초롱이는 그런 홍수를 걱정스럽게 지켜보다가 말을 건넨다.

초롱: (걱정스러운 눈길로) 홍수야, 정신 차려! 무슨 일이야?

홍수: (덜덜 떨며) 예전에 구석기 시대에 빙하가 떨어졌었다고 했었지? 그 때 그 빙하를 불러왔던 사람이 저기 저 사람이야!

초롱: 뭐라고? 말도 안 돼.

홍수: 진짜야!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저 마녀가 하늘에서 빙하를 불러 떨어뜨리는

걸 봤다고! 그리고 내가 그 마녀를 저지하려다가 그만…….

홍수는 말을 하려다가 말문이 막히고 잠시 생각에 잠긴다.

초룡: 너 왜 그래?

홍수: 아, 아니야.

초룡: 근데 구석기 시대 사람이라고 해도 어떻게 다시 깨어난 거지? 혹시 너가 깨어난 것과 뭔가 관련이 있나?

홍수: 나도 잘… 모르겠어.

초룡: 그럼 이제 어떡하지? 너 말대로 마녀라면 우리가 물리칠 수 있을까?

홍수: 글썄… 만약 저 사람이 진짜 마녀라면 강력한 주술을 쓰는 것이 분명해! 예전에는 내가 절벽으로 밀어서 쓰러뜨렸지만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초룡: 음, 아직 누군지 정체를 알 수 없으니까 좀 더 가까이 가보자!

홍수: 응! 뿌빠야 조금만 더 힘을 내!

홍수와 뿌빠는 다가오는 화석들을 막으면서 마녀가 있는 곳을 향해 달려간다. 주문을 외우던 마녀는 화석들이 쓰러지는 것을 발견하고 주문을 멈춘다.

마녀: 아니! 화석들이 갑자기 쓰러지고 있잖아?

마녀는 홍수일행이 있는 곳을 향해 가까이 다가온다.

마녀: (신경질적으로) 누구냐? 누가 감히 날 방해하는 거야!

마녀는 하늘에서 홍수 일행은 내려 보더니 점점 내려온다.

마녀: 흥! 가소롭군. 감히 인간 주제에…

초룡: 당신! 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홍수: (조그마한 목소리로)초룡아, 넌 빨리 숨어! 뿌빠야 초룡이를 부탁해!

뿌빠: 윽 윽!

초롱이가 무엇인가 말하려 하지만 뿌빠가 재빠르게 초롱이를 데리고 숨는다. 하늘에서 내려오던 마녀는 홍수를 보고 구석기 시대에서의 최후를 떠올린다. 그리고 사악한 웃음을 지으면서 홍수를 바라본다.

마녀: 아니?! 저건 그 때 날 방해했던 그 놈 아니야? (가소롭다는 듯이 고개를 뒤로 젖히며) 깔깔깔. 저번엔 내가 방심해서 당했지만 이번엔 어렵없다!

홍수: 날 알아보는군. 오랜만이야.

마녀: 알아보지 않을 수가 없지. 내가 누구 때문에 몇 만 년을 동굴에 묻혀 있었는데! 네 놈 가만두지 않겠다!

홍수: 나야말로 이번엔 당신을 꼭 내 손으로 끝내주겠어!

마녀가 알 수 없는 언어로 주문을 외우자 화석들이 홍수를 향해 달려오고 홍수는 재빠르게 움직이며 화석들을 하나둘씩 제거한다.

홍수: 하하하! 더 덩벼 봐!

마녀: 흥! 생각보다 실력이 좋군.

홍수는 계속해서 화석들을 공격하고 마녀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지켜보다가 이내 음흉한 웃음을 짓는다.

마녀: (음흉하게) 이 녀석 꽤 쓸모가 있겠어.

마녀가 주문을 외우자 조그마한 벌레들이 나타나고 홍수를 향해 날아간다. 홍수는 벌레로 인해 시야가 막히지만 이리저리 움직여서 벌레들을 털어낸다.

홍수: 겨우 이런 걸로 날 막을 수 있을 거 같아?

홍수가 벌레들을 물리치고 나오려 하는 데 그 사이를 틈타서 마녀는 홍수에게 주술을 건다. 홍수는 자신을 향한 주술을 피하지 못한다.

홍수: (괴롭게 몸부림을 치며)으아악!

마녀: (고개를 젓히며) 깔깔깔. 넌 이제부터 내 부하가 되는 거다! 깔깔깔.

멀리 떨어져서 홍수와 마녀를 지켜보고 있던 초롱이는 홍수가 마녀의 주문을 맞고 쓰러지는 것을 보고 소리를 지른다.

초롱: (절규하듯이) 홍수야!!!!

홍수가 털썩 주저앉았다가 비틀거리면서 일어난다. 홍수의 눈빛이 어딘지 모르게 달라져 있다.

초롱: 홍수야!! 뿌빠야, 홍수한테 가보자!

숨어있던 초롱과 뿌빠는 홍수한테 다가가 보는데 초롱이를 알아보지 못한 홍수는 이들을 향해 공격태세를 취한다.

초롱: 홍수야! 너 왜 그래?

마녀: (가소롭다는 듯이) 홍수? 이름도 완전 촌스럽군. 거기 꼬마, 애는 이제 내 부하다. 예전 기억 따위는 남아있지 않아!

초롱: 뭐? 말도 안 돼!

마녀: 흥. 쪼그만 게 말도 많군. 홍수! 저 여자애를 공격해라!

홍수가 초롱이를 향해 다가온다.

초롱: (울먹거리며) 홍수야... 나야 초롱이!

홍수:

초롱이와 뿌빠는 한걸음 더 다가가는데 이 때 홍수가 공격을 하려하고 뿌빠는 뒷걸음질 한다.

초롱: 홍수야! 정신차려!!!

홍수가 초롱이를 향해 달려오는데 뿌빠는 초롱이를 업고 이리저리 공격을 피한다.

마녀: 가만히 보니까 거기 똥개도 구석기 시대에서 온 거 같군. 너도 내 부하로 만들어야 겠어!

마녀는 뿌빠를 향해 주술을 날리지만 날썬 뿌빠는 초롱이를 업고 재빨리 달아나버린다.

초롱이: 홍수야!!!

뿌빠는 초롱이를 등에 업고 빠르게 달려서 숲 속으로 들어간다.

마녀: 쳇! 놓쳤군. 뭐... 어차피 조금 있으면 다 사라져 버릴 거니까 찾을 필요는 없겠군. 홍수! 나와 함께 도시 중심부로 가자!

마녀의 명령을 듣고 홍수는 마녀와 함께 도시 중심부로 향한다.

49. 박물관 뒤쪽

뿌빠는 급하게 달리다가 다리에 상처가 나서 쓰러진다.

초롱: (울면서) 뿌빠야, 정신차려!

뿌빠: (기운없이) 끄응끄응.

초롱: (주저앉아 울면서) 흑흑...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초롱이는 변한 홍수의 모습을 다시 떠올리며 망연자실한다.

초롱: 마녀가 홍수를 조종하고 있는 게 분명해!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그렇지 뿌빠야?

뿌빠: (힘을 내라는 듯이)월월!

초롱: 그래! (눈물을 그치고 냉정을 되찾으며) 지금은 울고 있을 때가 아니야! 잠깐, 아까 그 화석들은 박물관 쪽에서 나왔었지... (박물관장을 떠올리며) 전에 홍수에 대해 박물관장님이 설명을 해주셨어! 박물관 안으로 들어가 봐야겠어! 뿌빠야, 움직일 수 있겠어?

뿌빠: (비틀거리며 일어나서)월월!

초롱이는 뿌빠와 함께 박물관 안으로 들어간다.

50. 박물관 내부

박물관 안이 어두컴컴한 가운데 전등이 깜빡거린다.

초롱: (덜덜 떨며) 공포영화에 나오는 곳 같네... 정말 무섭다. 내가 정말 해낼 수 있을까? 아니야. 난 할 수 있어! 조금만 더 힘내보자!

초롱이는 으스스한 분위기에 겁을 내지만 마음의 평정을 되찾고 박물관 내부로 점점 들어간다.

초롱: 괜찮아, 괜찮아. 뿌빠가 있으니까... 그치?

뿌빠: (가볍게 꼬리치며) 윽윽!

초롱: (두리번거리며) 박물관이 정말 텅텅 비어있네. 박물관장님은 무사하실까?

이 때 박물관 전시장에서 조그마한 화석 하나가 달려 나온다.

초롱: 엄마야! 이게 뭐야!

화석이 으르렁대면서 초롱이한테 달려드는데 이를 뿌빠가 저지한다.

뿌빠: (으르렁거리며) 윽윽!

초롱: 뿌빠야, 고마워. (울 것 같은 목소리로) 괜찮아, 괜찮아... 난 할 수 있어.

갑자기 뿌빠가 쿵쿵 냄새를 맡더니 초롱이를 어딘가로 안내한다.

초롱: 뭔가 발견했구나! 잘했어!

뿌빠가 박물관 지하계단을 내려가고 초롱이가 이를 뒤쫓는다.

51. 박물관 지하

거의 암흑에 가까운 상태의 지하. 물이 똑똑 떨어지는 소리만이 들린다.

초롱: (울먹거리며) 여긴 정말 무섭다. 뿌빠야, 여기가 맞아?

뿌빠: 윽윽!

초롱: 웬지 화석이 또 나타날 것 같아서 무서워…….

그 때, 어디선가 사람 목소리가 들린다.

박물관장: (모기같은 소리로) 사람 살려...

초롱: 뿌빠야! 너도 목소리 들었니?

초롱이는 희미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안쪽으로 들어가고, 의자에 묶여있는 박물관장의 모습을 발견한다.

초롱: 박물관장님!

박물관장: (애원하듯이) 살려줘...

초롱: 뿌빠야! 어서 밖으로 모시고 가야겠어!

초롱이와 뿌빠는 박물관장을 부축하여 지하계단을 올라간다.

52. 박물관장의 방

기운이 없던 박물관장은 냉장고에서 급하게 먹을 것을 먹는다.

박물관장: (음식을 먹으며)우걱우걱.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고맙다. 꿀꺽. 넌 내 생명의 은인이야!

초롱: 뭘요.

박물관장: 그런데 넌 이름이 뭐니?

초롱: 전 초롱이에요. 그런데 박물관장님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박물관장: (계속해서 먹으면서) 나도 잘 모르겠어. 잠에서 깨어나 보니 껌껌한 지하에 갇혀있더구나. 아무리 소리쳐 봐도 아무도 오지 않아서 이대로 죽는구나 하고 있는데, 갑자기 네가 나타난 거야. 그건 기적이었지!

초롱: 정말 아무 것도 기억이 안 나세요?

박물관장: 응. 그런데 밖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초룡: 박물관장님, 밖에서 화석들이 살아 움직이고 있어요!

계속 음식을 먹던 박물관장은 갑자기 눈을 커다랗게 뜨고 초룡이를 바라본다. 그리고 목에 사레가 걸려서 괴로워한다.

박물관장: (목을 치며) 킁킁.

초룡: 괜찮으세요?

박물관장: 쿨룩쿨룩. (물을 마시고) 괜찮다. 근데 방금 뭐라고 했지? 화석들이 움직인다고?

초룡: 네! 시내가 어두컴컴해지고 쿵쿵 소리가 들려서 밖으로 나가보니 화석들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어요. (울먹거리며) 그리고 제 친구 홍수가 갑자기 변해서…….

박물관장: 음… (중얼거리며) 내가 본 것이 꿈이 아니었군. 근데 친구가 변했다고?

초룡: 네. 전에 여기에 있었던 아이의 화석 알고 계시죠?

박물관장: 알다마다. 그 아이는 우리 박물관에서 얼마나 유명한데. 그런데 얼마 전에 사라졌었지.

초룡: 네. 그 아이가 사람으로 변해서 저를 찾아왔어요.

박물관장: (깜짝 놀라며) 뭐? 그 아이가 살아났다고?

초룡: 네. (뿌빠를 가리키며) 지금 옆에 있는 뿌빠도 원래 박물관에 있던 화석이었어요. 구석기 시대 때부터 홍수의 친구였대요.

뿌빠가 자기 이름을 부르자 꼬리를 치며 초룡이한테 다가와서 애교를 부리고 박물관장은 그 모습을 보며 경악한다.

박물관장: 그럼 그 개가 화석이라고?

초룡: 네! 굉장히 순해요!

뿌빠: (박물관장을 쳐다보며) 월월!

박물관장: (신기하다는 듯이 뿌빠를 쳐다보며) 그렇다면 이게 쌍코뿔이군! 실제 모습을 보게 될 줄이야!

박물관장은 흥분해서 뿌빠를 만지며 이리저리 돌려 본다. 뿌빠는 기분이 살짝 상했는지 박물관장을 물려고 한다.

뿌빠: (인상을 쓰며) 월월!

박물관장: (뒷걸음질 치며) 어이쿠!

초롱: 뿌빠야! 그럼 안 돼!

박물관장: 어쩐지 드문드문 화석들이 사라져서 이상하다 했었지. 그런데 살아서 움직인다니... (중얼거리며) 역시 그 돌이 심상찮군!

박물관장은 두루봉 동굴 안에서 신비한 빛을 내던 돌을 다시 떠올린다.

초롱: 돌이라뇨? 박물관장님! 역시 뭔가 알고 있으시죠?

박물관장: 음... 그 아이 이름이 뭐라고?

초롱: 홍수요! 제가 붙여줬어요.

박물관장: 그래. 그 홍수가 발견된 동굴이 있어.

초롱: 네, 저번에 박물관에서 들었어요.

박물관장: 알고 있구나. 얼마 전에 홍수가 사라져서 홍수를 발견했던 동굴을 다시 한 번 찾아갔었지. 혹시 도둑이 나타날까 해서 말이야. 그 때 그곳에서 반짝이는 돌을 발견했어. (두려움에 덜덜 떨며) 그리고 그 무서운 눈!

박물관장은 말을 하다 말고 갑자기 덜덜 떨며 몸을 웅크리고 초롱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박물관장에게 다가간다.

초롱: 박물관장님, 괜찮으세요?

박물관장: (숨을 고르며) 후... 동굴에서 무서운 눈이 나를 조종하기 시작했어. 지금까지 나는 그것이 꿈인 줄 알고 있었지. 정말 그 물결은 끔찍했어.

박물관장은 몸을 덜덜 떨면서 동굴에서 자신에게 들린 목소리와 그 끔찍한 마녀의 모습을 떠올리며 두려워한다.

초롱: 혹시... 무시무시하게 생긴 마녀를 보신건가요?

박물관장: 마녀? 그래. 그건 이 세상의 것이 아니었어. 그 마녀는 나를 이용해서 구석기 시대 화석들을 박물관으로 모아오게 했어. 그리고 호박(보석)을 모아서 자신에

게 가져오게 하고는 그걸 먹어치웠지.

박물관장은 자신이 마녀를 위해 일을 하던 모습을 떠올리며 괴로워한다. 동굴에서 박물관장은 마녀에게 호박을 가져다주고 마녀는 그것을 게걸스럽게 먹어치우는 장면이 박물관장의 눈에 선하다.

초롱: 박물관장님을 조종한건가요?

박물관장: 그래. (머리를 쥐어짜며) 가끔 제정신이 돌아오기도 했었는데 난 그걸 끔찍한 악몽이라고만 생각했어.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허구가 아닌 실제였군!

초롱이는 박물관장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불안에 떠는 모습을 보며 두려워한다.

초롱: 박물관장님 지금은 괜찮으신 거죠?

박물관장: (덜덜 떨며) 그래. 마녀는 호박을 잔뜩 먹더니 갑자기 사람 형체로 변했어. 힘이 돌아왔다고 하더군. 그리고는 나를... 나를.....

박물관장은 몸서리치며 부들부들 떨고, 초롱이는 두려워하면서도 용기를 내서 박물관장의 몸을 잡고 흔든다.

초롱: 박물관장님, 정신 차리세요! 지금 이럴 때가 아니에요! 바깥에 화석들이 돌아다니고 있다고요. 뭔가 막을 방법이 없을까요?

박물관장: 음... 그래! 그 돌! 분명 그 돌과 마녀는 연관되어 있는 것이 분명해!

초롱: 돌이요? 그 동굴에서 발견되었다는?

박물관장: 응. 그 돌이 반짝거리면서 빛을 내고 마녀는 그 돌로 주술을 거는 거 같았어.

초롱: 그럼 동굴로 가서 그 돌을 부숴야겠어요.

박물관장: 하지만... 그 돌은 우리 같은 일반인이 만질 수 없었어. 잘은 모르겠지만 그 홍수라는 아이라면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초롱: 그러면 홍수를 제정신으로 돌려야겠네요. 뭔가 방법이 없을까요?

박물관장: 마녀의 주술은 시간이 지나면 풀리는 것 같았어. 나도 중간 중간 기억이 돌아오기도 했거든. 일단 홍수를 찾아 오거라!

초롱: 네? 박물관장님은요?

박물관장: 나는 지금 기운이 없어서 일어날 수가 없구나. 좀 더 쉬어야 할 거 같다.

초롱: (의심쩍어 하며) 아, 네... 그럼 갔다 올게요!

초롱, 뿌빠는 박물관을 나간다. 박물관장은 그 모습을 뒤에서 바라본다.

박물관장: 휴... 초롱이가 무사히 홍수를 찾아와야 할 텐데.....

53. 청주 시내

초롱: 홍수는 대체 어디에 있는 거지? (큰 소리로) 홍수야!

뿌빠: (홍수를 부르는 것처럼) 월월! 월월!

초롱: 홍수가 제정신을 찾아야 하는데... 또다시 공격하면 어떡하지?

홍수는 청주 시내를 파괴하고 있다. 이 모습을 초롱이가 발견한다.

초롱: 홍수야!

홍수:

홍수가 초롱이를 보고 달려온다. 뿌빠는 초롱이를 뒤에 태우고 도망쳐서 부서진 건물 틈 사이로 몸을 숨긴다. 홍수는 두리번거리면서 초롱이를 찾는다.

초롱: (울먹거리며) 홍수가 아직도 나를 알아보지 못하네. 그래도 다시 한 번 가 봐야겠어!

뿌빠: 월월!

초롱이는 건물 틈에서 나와 조심스럽게 홍수를 향해 다가간다. 하지만 홍수는 초롱이를 공격하려고 하고 뿌빠가 이를 저지한다. 하지만 홍수의 공격에 뿌빠는 내동댕이쳐진다.

초롱: (절규하듯이) 뿌빠야!

뿌빠: 깨갱깨갱...

초롱: 홍수야! 내가 아끼는 친구 뿌빠라고! 대체 너 왜 그래? 흑흑.....

홍수: (잠시 동요하는 눈빛이 보이다가 이내 냉정한 눈빛으로 돌아온다)

홍수는 초롱이를 향해 점점 다가오고, 초롱이는 뒷걸음질 하다가 발을 헛디뎌서 낭떠러지로 떨어지려고 한다.

초롱: 까악! 홍수야! 살려줘!

초롱이가 떨어지려고 하는 순간 홍수는 과거를 회상한다.

54. 과거회상-구석기 시대, 동산 위

홍수는 초롱이를 닮은 여자아이와 함께 동산에서 즐겁게 놀고 있다. 활발한 여자아이가 먼저 달려가고 그 뒤를 홍수가 쫓는다.

여자아이: 하하하. 너 진짜 느리다!

홍수: (헉헉거리며)같이 좀 가자!

여자아이: 빨리 와!

먼저 가던 여자아이는 절벽 쪽에서 꽃을 발견하고 꽃을 따러간다.

여자아이: 어! 저 꽃 예쁘다.

홍수: 거기 위험하니까 조심해!

홍수는 위험하다며 여자아이한테로 가고, 여자아이는 꽃을 따서 홍수에게 전해주려고 한다.

여자아이: 여기 꽃!

홍수에게 꽃을 전해주려던 여자아이가 그만 발을 헛디더 절벽에서 떨어진다.

여자아이: 까악!

홍수: 안 돼!!!

홍수는 손을 뻗지만 손은 허공을 휘저을 뿐이다. 홍수는 여자아이를 잃고 허망자실하게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린다.

55. 현실-청주 시내

홍수의 눈이 원래대로 돌아오면서 정신이 돌아온다. 홍수는 눈앞에서 초롱이가 떨어지려는 모습을 발견하고 초롱이를 향해 손을 뻗는다.

홍수: (손을 뻗으며)초롱아!

홍수는 아슬아슬하게 초롱이의 손을 붙잡고 초롱이를 잡아 끌어올린다.

초롱: 홍수야! 기억이 돌아왔구나!

홍수: 대체 어떻게 된 거지? 기억이 전혀 나질 않아. 초롱아 넌 왜 떨어진 거야?

초롱: 마녀가 너한테 주술을 걸었었어. 그래서 네가 우리를 공격하려 했었고.

홍수는 자신이 초롱이를 공격하려 했다는 얘기를 듣고 무의식적으로 초롱이로부터 떨어지려는 듯 뒷걸음질을 한다. 그리고 무언가를 기억하려는 듯이 머리를 싸매지만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아 괴로운 표정을 짓는다.

홍수: 정말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

초롱: 홍수야…

홍수: 어디 다친 데는 없는거야?

초롱: 난 괜찮아!

홍수: (시무룩한 표정으로) 정말 미안해.

초롱: (울먹거리며) 괜찮아.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

홍수는 피로워 하다가 무엇인가를 찾는 듯 갑자기 주위를 두리번거리기 시작한다.

홍수: (두리번거리며) 그런데 뿌빠는 어디 있어?

초롱: …….

홍수: 어디 있는데?!

초롱: (조심스럽게) 아까… 너한테 공격을 당하고 쓰러졌어.

홍수: 뭐?! (다급하게) 뿌빠는 어디에 있어?

초롱이는 뿌빠가 공격을 당했던 곳으로 와서 뿌빠를 찾는다. 홍수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안절부절 못하며 초롱이 뒤를 쫓는다.

초롱: 뿌빠야, 어디 있어?

홍수: (절규하며) 뿌빠야! 뿌빠야!

홍수를 절규에 가까운 울부짖음으로 뿌빠를 부른다.

초롱: (조심스럽게) 아무래도 아까 공격에 뿌빠가…

홍수: (울부짖듯이) 그런 말 하지 마! 그럴 리가 없어! 뿌빠는 살아 있을 거야! 뿌빠야!!!

뿌빠: 깨갱….

멀리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리고 뿌빠가 비틀거리며 홍수에게 다가온다. 홍수는 뿌빠를 발견하고 달려간다.

홍수: (울면서) 뿌빠야, 미안해...

뿌빠: (힘겹게) 월월!

홍수: 뿌빠야... 내가 너한테 무슨 짓을 한 건지.....

초롱: (울먹거리며) 뿌빠야. 그래도 무사해서 다행이다.

홍수는 뿌빠를 감싸 안고 있다가 결심했다는 듯이 눈에 힘을 주고 자리에서 일어난다.

홍수: (두 손을 불끈 쥐고) 마녀를 가만두지 않겠어!

초롱: (무언가 생각난 듯) 아참, 아까 네가 주술에 걸렸을 때 박물관장님을 만났어.

홍수: 박물관장?

초롱: 응. 너의 화석이 있던 박물관의 관장님이셔. 지금 박물관에 계셔. 같이 가보자!

홍수는 작아진 뿌빠를 안고 박물관장에게로 간다.

56. 박물관 앞

박물관장은 두려움에 떨면서 초롱과 홍수가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덩불 속에 숨어 있다.

박물관장: 왜 이렇게 안 오지? 설마 무슨 일이 생긴 건가? (덜덜 떨며) 난 이제 어떡해야 하지?

이 때 누군가가 다가오는 소리가 난다.

홍수: 여기 있는 거 아니었어?

초롱: 왜 안 보이지? 설마 도망가셨나?

홍수: 설마…….

초롱: 박물관장님! 어디에 계세요?

박물관장: 초롱아, 홍수는 찾았니?

초롱: 네. 나와 보세요!

박물관장은 덩불 속에서 방망이를 들고 숨어 있다가 부스럭거리면서 주위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나온다.

초롱: 대체 어디에 있으셨던 거예요?

박물관장: (머뭇거리며) 그제.. 좀 무서워서...

박물관장은 계속해서 주위를 두리번거리다가 초롱이 옆에 있는 홍수를 보고 눈이 커진다.

박물관장: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네가 홍수구나! 내가 구석기인과 만나다니! (악수를 청하며) 반갑구나. 홍수야.

홍수: (당황하며) 아, 네…….

홍수는 당황하며 박물관장과 악수를 한다. 박물관장은 손부터 만지기 시작해서 홍수의 몸 구석구석을 이리저리 만져보면서 행복해 한다.

박물관장: (흥분하여) 오오오! 손은 엄청 두껍네! 나보다 두꺼운 걸! 발은 맨발로 다녀도 전혀 아프지 않니?

홍수: 네...뭘.

박물관장: 현대인들보다 역시 머리가 크다!

박물관장이 홍수의 머리를 만져보려고 하자 홍수는 살짝 몸을 빼서 박물관장으로부

터 멀어진다. 박물관장은 그런 홍수를 보며 머쓱해한다.

박물관장: 기분 나빴다면 미안하구나. 너를 보고 반가워서 그만…….

홍수: …….

박물관장: 구석기인이 그래도 생각보다 잘생겼구나!

홍수: (쑥스러워 하며) 감사합니다...

홍수는 머리를 긁적이며 쑥스러워하고 박물관장은 다시 홍수를 이리저리 빙 둘러보며 다시 관찰하기 시작한다. 초롱이는 박물관장과 홍수의 대화를 보며 한심스러운 표정을 짓는다.

초롱: 박물관장님! 지금 이럴 때가 아니에요! 홍수 너도!

홍수: 으..응. 초롱아.

초롱: 지금 청주와 청원이 위험해!

홍수: 맞아! 빨리 마녀를 저지하러 가야 돼!

박물관장: (점연찍어하며) 호음... 그래.

초롱: 박물관장님, 동굴 위치를 알려주세요!

홍수: 동굴?

초롱: 응, 박물관장님이 너의 화석이 사라지고 나서 다시 한 번 너를 발견했던 동굴로 가보셨대. 그랬더니 그 곳에 반짝이는 돌이 있었고, 마녀가 나타났다고 하셨어.

홍수: 뭐! 동굴에서 마녀가 나타났다고?

초롱: 응! 마녀가 박물관장님을 조종해서 구석기 시대 화석을 한 곳에 모으게 했데. 그리고 힘을 회복해서 관장님을 가두고 화석들에 주문을 건거래!

홍수: 그랬군. 내가 죽기 전에 마녀의 주술을 막았는데, 그걸로 마녀의 돌과 연관이 되어 있나봐. 그래서 내가 깨어나면서 마녀도…….

홍수는 말을 하다가 잠시 멈추고 초롱이는 그런 홍수를 가엾게 쳐다본다.

초롱: 네가 다시 살아난 것과 마녀가 관련이 있었구나.

박물관장: 홍수야, 돌에 대해서 뭔가 아는 게 있니?

홍수: (무엇인가 생각났다는 듯이) 반짝이는 돌이라면... 예전에 본 적이 있어.

초롱: (놀라며) 뭐? 언제?

홍수: 마녀가 그 돌을 이용해서 주술을 부렸었어. (머리를 싸매며) 그래서 우리 가족을... 우리 마을을...!!

홍수는 분노에 부들부들 떨고, 초롱이는 홍수에게 다가가서 손길을 건넨다.

초롱: 홍수야.....

홍수: 이번엔 무슨 일이 생기기 전에 마녀를 막아야 돼! 박물관장님, 빨리 그곳으로 가 봐요!

박물관장: 뭐? 나는 별로 가고 싶지는 않은데.....

초롱: 뭐라고요? 말도 안 돼! 아까도 무서워서 나 혼자 가게 한 거죠? 그죠?

박물관장: 음... 아니 그게 아니라.....

이 때 홍수가 박물관장을 잡아끈다.

홍수: (눈을 부라리며) 당신도 함께 가야겠어. 빨리 길을 안내하라고!

홍수가 박물관장을 세게 잡아끌고 무서운 눈으로 쬼러보자, 박물관장은 겁을 먹고 홍수일행을 차로 안내한다.

박물관장: 할 수 없지... 내 차를 타고 가자.

초롱: (쬼러보며) 흥! 이런 겁쟁이 같으니라고!

박물관장의 차를 타고 두루봉 동굴로 향한다.

57. 두루봉 동굴 근처

초롱이는 박물관장의 차 안에서 어두컴컴하고 번개가 내리치고 있는 창밖을 바라본다. 그리고 한참동안을 말없이 무엇인가 골똘히 생각하고 있는 홍수를 약간 걱정스

러운 눈빛으로 쳐다본다. 홍수는 이런저런 생각에 잠겨 있다가 자신을 향한 시선을 느끼고 초롱이를 향해 희미한 미소를 짓는다. 초롱이는 홍수에게 기운을 북돋아주고자 환한 웃음을 지어 보인다.

박물관장이 차를 운전해서 구불구불한 길을 지나가다가 더 이상 차로 이동할 수 없어서 이들은 차에서 내린다.

박물관장: 여기서부터는 걸어서 가야 돼.

초롱: 한참 걸어가야 되나요?

홍수: (주위를 돌아보며) 아니, 여기서 금방이야.

초롱: 어? 홍수야. 그걸 어떻게?

홍수: (살짝 들뜬 듯이) 여기에 오니까 고향에 다시 찾아온 기분이 들어.

홍수의 눈앞에 과거 구석기 시대의 모습이 펼쳐지고, 구석기인들이 활기찬 모습으로 살아 움직인다. 홍수는 환한 웃음을 지어 보인다. 하지만 금방 구석기인들의 모습은 사라지고 폐허가 된 듯 동굴 유적지만이 남는다. 홍수의 눈가에서 웃음이 사라지고 쓸쓸함이 비춰진다. 그 옆에 뿌빠가 다가와서 홍수의 외로움을 달래준다.

홍수: 뿌빠야, 너도 예전이 그림니?

뿌빠: (힘이 빠진 듯이) 월월…….

초롱이는 구석기 시대를 그리워하는 홍수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안쓰러운 눈빛으로 홍수를 쳐다본다. 이내 홍수는 기운을 되찾고 동굴 유적지를 빙 둘러본다.

초롱: 홍수야… 기운 내.

홍수: 응! 고마워! 초롱아, 가자!

초롱: (밝게 웃으며) 응!

박물관장은 홍수와 초롱이를 떨어져서 지켜보다가 슬금슬금 뒷걸음질로 달아나기 시작한다. 그리고 금세 어딘가로 숨어버린다.

초롱: (고개를 갸웃거리며)어? 박물관장님은 어디 갔지?

홍수: (한심하다는 듯이) 흥. 또 숨어버렸나 보다.

초롱: 박물관장님도 참! 그새 겁이 났나 봐!

홍수: 할 수 없지. 우리끼리 동굴로 가보자. 뿌빠야! 이제 움직일 수 있겠니?

뿌빠: (힘차게) 월월!

홍수: 역시 뿌빠야! 그럼 이제 가자!

뿌빠는 공중에서 회전하고 다시 몸집이 커진다. 홍수와 초롱이는 뿌빠 등 위에 올라타고 동굴로 향한다.

58. 청원의 산 정상

마녀가 정상에서 주술을 외우고 있다. 마녀의 위로 검은 구름들이 모여서 회오리치고 있고, 천둥 번개가 번쩍번쩍 내리친다.

마녀: (광기에 어린 눈으로) 깔깔깔. 앞으로 조금만 있으면 이 세상이 내 것이 되겠군. 이번엔 기필코 모조리 파괴해버리겠어. 깔깔깔.

화면이 점점 멀어지면서 마녀의 웃음소리가 메아리친다.

59. 두루봉 동굴

동굴 안은 바깥보다 훨씬 어두컴컴하고 습한 기운과 퀴퀴한 냄새가 난다. 그리고 적막한 가운데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다. 홍수는 앞장서서 초롱이를 동굴로 안내한다.

초롱: (눈을 크게 뜨려고 하며) 여기는 진짜 어둡다. 앞이 잘 보이질 않아.

홍수: 어? 앞이 안 보여? 난 잘 보이는데.

초롱: (부럽다는 듯이) 넌 진짜 시력이 좋은가보다! 잠깐만, 아까 박물관장님 차에서 손전등을 가지고 왔어.

초롱이가 손전등을 주머니에서 찾아서 키자 동굴 안이 환해지면서 천장에 박쥐들이 날아간다. 불이 너무 환한 나머지 홍수와 뿌빠는 눈이 부셔서 몸을 웅크린다. 잠시 후 눈이 제대로 보이게 된 홍수는 불빛이 쏟아져 나오는 손전등을 바라보며 신기해한다.

홍수: 이걸 처음 보는 불님인걸? 작은데도 진짜 환하다! 불님 중에서도 이분이 제일 이구나! 그치?

초롱: (터져 나오는 웃음을 참으며) 으…응. 손전등이 으뎌이지. 어둠 속에서도 환한 불빛으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니까.

초롱은 손전등을 이리저리 살피며 신기해하는 홍수를 보고 싱긋 웃으며 홍수의 순수함에 다시 한 번 놀란다. 그리고 초롱이는 손전등으로 동굴을 이리저리 비춰보며 동굴 벽에 단순한 선으로 된 조그마한 그림들을 발견하고 놀란다.

초롱: 우와~ 진짜 신기하다. 예전 그림인데도 동물을 그렸다는 걸 알겠어!

홍수: (살짝 흥분해서) 그치? 우리 무리에서 제일 잘 그리는 사람이 그린거야! 어때? 대단하지?

초롱: 응! 그런데 여기가 정말 네가 살던 곳이니?

홍수: 응. 내가 태어나서부터 쭉 살았던 곳이야. (부끄러워하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과는 너무 다르지?

초롱: 응. 넓고 좋은 걸! 굉장히 시원하다.

홍수: 헤헤. 고마워.

초롱: 예전에는 불이 많질 않아서 살기 힘들었을 거 같은데… 어땠어?

홍수: …….

홍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을 꺼낸다.

홍수: 예전엔 불님이 없어서 어둠이 익숙했어. 사실 동굴 밖에서의 생활은 그다지 길지가 않았거든. 거의 대부분의 생활을 동굴 안에서 무리들과 함께 했었지.

홍수가 눈을 감자 동굴에 구석기인들이 그림을 그리고 도구를 다듬고 있다. 구석기

인들의 생활은 소박하게 느껴지지만 가족과 함께 하는 따뜻함이 느껴진다.

홍수: 어둠은 두렵지만 가족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전혀 두려움을 느끼지 못했어.

초롱: 그렇구나. 가족...

홍수: 헤헤. 이렇게 얘기하니깐 엄마, 아빠도 보고 싶다. (쓸쓸해하며) 이제 다시 볼 수는 없겠지.....

초롱: (살짝 미소를 지으며) 나랑 뿌빠가 네 곁에 있잖아. 힘 내!

홍수: 고마워, 초롱아.

홍수는 눈에 맺힌 눈물을 초롱이 몰래 닦아낸다. 그리고 한참을 말없이 걸어가다가 빛이 새어 나오는 것을 발견한다.

뿌빠: (뭔가 발견했다는 듯이) 월월!

홍수: 어! 저기!

초롱: 빛나는 돌이다!

동굴 안에서 영롱하고 신비로운 돌이 반짝반짝하며 빛을 내고 있다. 초롱이는 돌의 아름다움에 홀린 듯이 다가가려 한다.

홍수: 초롱아!

초롱이가 가까이 가려는 순간 돌에서 악한 기운이 흘러나와 초롱이를 잡아 끄려한다. 홍수는 돌에 정신이 뺏긴 초롱이의 손을 붙잡고 반대쪽으로 향한다. 초롱이는 여전히 제정신이 아닌 듯 하다가 픽 쓰러지고 홍수는 초롱이를 흔들기 시작한다.

홍수: 초롱아! 정신 차려!

뿌빠: 월월!

홍수가 초롱이를 걱정스러운 눈으로 쳐다보는 가운데 초롱이가 눈을 뜬다.

초룡: (머리가 지끈 아픈 듯이)어... 여기가 어디야?

홍수: (활짝 웃으며)초룡아! 정신이 드니?

초룡: 응... 어떻게 된 거야?

홍수: 네가 빛나는 돌에 홀린 듯 가까이 가더니 갑자기 쓰러졌어. (걱정하며)괜찮은 거야?

초룡: 응.

홍수: 아무래도 돌이 사람을 홀리는 거 같아.

초룡: (의아하다는 듯이)어? 근데 넌 괜찮은 거 같은데?

홍수: 음... 웬지 모르겠지만 나한테는 별로 영향이 없는 거 같다.

홍수는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하는 듯 동굴을 어슬렁 어슬렁거린다. 초룡이는 잠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뭔가 생각났다는 듯이 홍수에게 말을 한다.

초룡: 홍수야, 빨리 돌을 부수자! 한시가 급하다구!

홍수: 응!

홍수는 돌을 향해 걸음을 옮긴다.

60. 청주 시내, 하늘

비바람과 천둥이 내리치는 청주 시내 하늘. 사람들의 비명이 난무하고 시내는 점점 파괴되어 간다. 마녀는 사람들이 고통 받는 만큼 힘을 얻는다는 듯 기세가 등등하다. 그러다 갑자기 어떠한 낌새를 눈치 채며 주술을 중단한다.

마녀: (불길하다는 듯이) 아니, 이 기운은? 구석기 시대 존재가 마법의 돌에 접근한 것 같은데?! 그런데 도대체 누구지? 아까 그 꼬맹이는 내가 주술을 걸어 놔는데. 일단 마법의 돌을 지키는 것이 먼저! 그 쪽으로 가봐야겠어!

마녀는 누군가 돌에 다가가는 것을 감지하고 두루봉 동굴을 향해 날아간다.

61. 두루봉 동굴

홍수가 돌에 다가가 손을 대려는 순간 마녀가 나타난다. 마녀는 깜짝 놀라며 홍수에게 주술을 쏜다.

뿌빠: (으르렁거리며)윽윽!

홍수는 뿌빠의 목소리를 듣고 마녀의 주술을 가까스로 피한다. 뒤를 돌아보니 무시무시하게 생긴 마녀가 잔뜩 화가 나서 일그러진 얼굴로 홍수를 노려보고 있다.

마녀: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너! 뭐하는 짓이야?

홍수: (쏘아보며)뭐 하는 짓이긴. 이 돌을 파괴해 버릴 거야!

마녀: 네놈, 가만 안 두겠다!

마녀는 홍수를 향해 주술을 쏜다. 발이 빠른 홍수는 이리저리 주술을 피해 동굴 안에서 도망 다닌다. 마녀의 주술을 맞은 동굴 부분이 파괴되며 돌조각들이 떨어진 다.

마녀: 네놈 때문에 동굴을 무너뜨릴 수는 없지!

홍수: 흥!

동굴이 파괴되어 돌이 동굴 속에 파묻히는 것이 두려운 마녀는 홍수를 맞추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초롱이를 향해 주술을 쏜다.

마녀: 깔깔깔. 어디 한 번 당해봐라!

이 때 뿌빠가 빠르게 달려와서 초롱이 대신 주술을 맞고 쓰러진다. 눈을 꼭 감고 웅크리고 있던 초롱이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주술에 맞지 않자 눈을 뜨고 앞을 바라본다. 그 곳에 작은 모습으로 돌아간 뿌빠가 쓰러져 있다.

초롱: (울먹거리며) 뿌빠야! 뿌빠야 정신차려.

홍수: 뿌빠야!

초롱이가 뿌빠를 잡고 흔들어 보지만 뿌빠는 움직이지 않는다. 홍수는 눈물을 흘리며 뿌빠가 있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 때 마녀가 홍수를 향해 주술을 날린다. 홍수는 가까스로 급소를 피하지만 다리에 주술을 맞고 쓰러진다. 홍수는 피를 흘리며 고통스러워 한다.

홍수: (신음하며) 으!

마녀: (배를 잡고 비웃듯이) 깔깔깔. 꼴좋다. 감히 인간 따위가 나를 방해하려 하다니. 가소로운 것. 깔깔깔.

초롱: 홍수야! 흑흑…….

초롱이의 앞을 무너진 돌들이 가로막고 있어서 초롱이는 홍수에게 가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돌들을 움직이려 한다. 하지만 무거운 돌들은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고 초롱이의 손에서도 피가 흐른다.

마녀: 깔깔깔. (비꼬듯이) 이것 참 눈물 없이는 못 볼 장면이군. 깔깔깔. (홍수를 향해 다가가며)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네들 모두 함께 할 수 있게 해줄게. 저 세상에서 만날 준비나 하라구! 깔깔깔.

바닥에 쓰러진 홍수는 자신을 향해 마녀가 다가오는 것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간절하게 도움을 요청한다.

홍수: (마음속으로) 도와주세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홍수의 간절한 요청에 마법의 돌에서 밝은 불이 쏟아져 나온다. 불빛을 싫어하는 마녀는 눈을 감고 두 팔로 빛을 가로막는다. 마법의 돌에서 구석기 시대의 영혼들이 빠져나와서 홍수 주변을 에워싼다. 당황한 마녀는 구석기 영혼들을 향해 주술을 걸어보지만 소용이 없다.

마녀: (기겁하며) 히이익! 너 뭘 불러 낸 거야?

홍수: 당신에게 희생당한 나의 친구들이야. 고마워, 친구들아.

홍수는 구석기 영혼들을 보며 감사의 인사를 건네고, 구석기 영혼들도 홍수를 향해 방긋 웃어주고는 마녀를 에워싼다. 마녀는 밝게 빛나는 구석기 영혼들에 둘러싸여서 꿈쩍하지 못하고 덜덜 떠다. 홍수는 마법의 돌에게 다가간다.

홍수: (우렁차게) 이제 이 돌만 부수면 되겠어! 이야얍!

홍수는 두 손으로 힘겹게 돌을 들어 올려서 땅을 향해 강하게 내려치려고 한다. 그 순간 마녀가 찢어질 듯한 목소리로 절규하듯이 외친다.

마녀: (다급하게) 잠깐! 멈춰!

홍수: 흥!

마녀: 그 돌을 부수면 너도 나와 함께 세상에서 없어지게 된다.

홍수: (눈이 동그래지며) 뭐?

마녀: 네가 지금 어떻게 그 몸을 유지하고 있는 줄 아냐? 저 영험한 돌의 힘으로 네놈이 살아 움직이고 있는 것이야.

홍수는 돌을 부수면 자신의 존재도 함께 사라진다는 말을 듣고 충격을 먹은 듯 멈춰 서있다. 항상 또렷하게 빛나던 홍수의 눈동자가 갈등을 하는 듯 흔들리고 잠시 후 홍수는 돌을 내려놓는다.

마녀: (비웃듯이) 깔깔깔. 너도 제 목숨을 버리기는 아까운가보군. 깔깔깔.

마녀는 주춤거리는 홍수를 바라보며 깔보듯이 웃는다. 죽음이라는 기로에 놓인 홍수는 마녀를 향한 분노심에 주먹을 불끈 쥐고 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다.

마녀: 꼬맹이, 그 돌을 내려놓고 나를 풀어줘. 나를 도와주면 내가 너와 초룡이 목숨만은 살려주마.

홍수: 웃기지마!

마녀: (속삭이듯이) 네가 원한다면 내가 너를 구석기 시대로 되돌려 줄 수도 있어.

마녀는 간사한 목소리로 계속해서 갈등하고 있는 홍수가 마법의 돌을 부수지 않고 자신에게 넘기도록 유인한다.

홍수: (노려보며) 난 당신을 믿을 수 없어.

마녀: 흥. 네가 그걸 부수면 영영 초룡이를 만날 수 없는데도? 깔깔깔.

홍수는 누군가에게 머리를 세게 맞은 듯한 충격을 받고 멀리 있는 초룡이를 슬픈 표정으로 바라본다. 그리고 마법의 돌을 다시 한 번 바라본다. 홍수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다.

홍수: (안타깝다는 듯이) 이제 겨우 만났는데…….

초룡: 홍수야…….

홍수는 다시 한 번 초룡이를 애절한 눈빛으로 바라본다. 이내 부들부들 떨리던 손이 멈추고, 홍수는 결심했다는 듯이 마법의 돌을 잡고 땅에 강하게 내려친다. 마법의 돌에서 검은 기운이 흘러나오면서 깨질 듯한 비명소리가 들리고 마법의 돌이 깨져버린다. 돌이 깨진 것을 본 마녀는 고개를 흔들며 뒤로 물러선다. 마녀의 손이 재로 변해가기 시작하고 마녀는 찢어질 듯한 목소리로 비명을 지른다.

마녀: (절규하며) 끼아아아아악~!!!

마녀는 한줌의 재가 되어 부스러진다. 검게 쌓인 재들은 한 줄기 바람에 멀리 날아가서 이내 사라진다.

62. 청주 시내

어두컴컴했던 구름이 걷히면서 하늘이 다시 밝아지고 해가 비춘다. 도시를 파괴하던 움직이는 화석들이 동작을 멈추고 모두 빠가 되어 땅에 떨어진다. 쿵쿵 거리는 파괴음이 들리지 않자 숨어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거리로 나온다.

청주 사람1: (환하게 웃으며) 드디어 다 끝났어! 끝났다구!

청주 사람2: (망가진 차를 보고 울먹거리며) 내 차! 아직 할부도 남았는데... 엉엉.

청주 사람3: 그런데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

청주 사람4: 정말 누군가 영웅이 나타나서 우리를 구해준 거야!

청주 사람1: 만세! 어디 사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정말 고맙군.

사람들은 누군가 영웅이 나타나 청주를 구원해주었다고 생각하며 수군거린다. 그리고 도시에 떨어져 있는 화석들을 신기하게 쳐다보며 조심스럽게 만져 본다. 한 아이가 화석을 만지자 화석이 살짝 주저 앉고, 깜짝 놀란 아이가 줄행랑치는 모습을 보며 사람들이 웃는다.

63. 두루봉 동굴

마녀가 재가 되어 사라지고 조용해진 동굴. 마법의 돌이 부서지고 주위가 어두컴컴해져 있다. 초롱이는 주변을 더듬거리다가 손전등을 발견하고 스위치를 켜다. 동굴안이 다시 밝아지고 초롱이는 홍수가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뒷모습을 발견한다. 그리고 홍수가 있는 곳으로 걸어간다.

초롱: 이제... 다 끝난 건가?

초롱이의 시야에 멀리 쓰러져 있던 뿌빠가 보인다. 그리고 뿌빠의 몸에서 빛이 나며 영혼이 빠져나고 뿌빠가 있던 자리에는 화석만이 남아있다.

초롱: (울먹거리며) 뿌빠야!

홍수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초롱이가 있는 곳으로 비틀비틀 걸어온다. 초롱이는 자신을 향해 걸어오는 홍수를 발견하고 한층 더 서글퍼짐을 느낀다.

홍수: (살짝 웃음을 지어보이려고 하며) 초롱아... 너무 슬퍼하지 마. 뿌빠는 원래 있던 곳으로 되돌아가는 것뿐이니까.

초롱: (울먹거리며) 뭐? 돌아간다고?

홍수: ...

홍수는 말없이 비틀거리며 초롱이를 동굴 밖으로 데려가 준다.

64. 동굴 밖

동굴 밖으로 홍수와 초롱이가 나온다. 홍수는 동굴 밖에 피어있는 꽃 한송이를 꺾어서 울고 있는 초롱이의 머리에 꽂아준다.

홍수: 울지마, 초롱아. 넌 웃는 게 더 예뻐.

초롱: (울먹거리며) 그치만.. 그치만...

홍수는 울고있는 초롱이를 감싸 안아준다. 초롱이도 홍수를 안고 홍수의 따뜻한 체취를 느낀다. 그렇게 긴 듯 짧은 듯한 포옹이 끝나고, 잠시 후 홍수의 몸에서도 빛이 비추더니 영혼이 빠져나가기 시작한다.

홍수: (미소를 지어보이며) 나도 이제 뽀빠 곁으로 떠날게.

초롱: (애절하게) 홍수야! 안 돼!

홍수: (활짝 웃으며) 초롱아, 안녕! 다음에 또 보자!

초롱: (눈물을 닦으며) 홍수야... 고마웠어! 안녕!

초롱이는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으려고 노력하며 떠나는 홍수를 향해 환한 웃음을 지으며 손을 흔든다. 영혼이 되어 떠나는 홍수도 초롱이를 향해 손을 흔들다가 이내 서서히 사라진다.

초롱이는 홍수가 있던 곳을 허망하게 바라보지만 홍수가 있던 자리에는 홍수의 화석만이 남아있다. 초롱이는 홍수의 화석을 안고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다가 홍수를 안고 하늘을 바라본다.

65. 박물관

박물관 앞에 청주, 청원 사람들과 방송국 취재진들이 가득 몰려 있다. 그리고 박물관 앞에 홍수의 복원상이 놓인다. 박물관장은 장황한 말을 늘어뜨리며 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초롱이는 멍하니 홍수의 복원상을 바라보며 홍수와의 추억을 떠올려 본다.

박물관장: 그럼 홍수와 함께 세상을 구한 초롱이의 연설을 듣겠습니다. 모두 박수로 맞아주세요.

박물관장이 초롱이를 소개하고 사람들이 크게 환호하며 초롱이를 부른다. 초롱이가 나오려고 하는데 방송국의 취재진들이 몰려와서 사진을 찍기 시작한다. 초롱이는 머뭇머뭇하다가 용기를 내어 단상 앞으로 나와서 연설을 한다.

초롱: 이 아이의 이름은 홍수입니다. 홍수는 구석기 시대에서 왔어요. 그는 누구보다도 순수했고, 자연을 많이 사랑하던 아이였어요. 그리고 자신을 희생해서 이 세상을 구해주었죠. 모두들 홍수를 기억해주세요.

초롱이는 연설을 마치고 뒤돌아서 홍수의 복원상을 지긋이 바라보고는 하늘을 쳐다본다. 카메라가 높이 하늘로 올라가며 평화롭고 아름다운 청주시, 청원군이 화면에 잡힌다. 새들이 떼를 지어 날아가고 밝게 태양이 빛나고 있다.